2023. 6.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 동향 I 제37호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기술경제 동향
경제 현안 |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최근 논의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NABO 경제 동향」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02-6788-37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경제 동향」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3년 6월호 통권 제37호

Contents

Ⅰ 지출

1. 소비 06
2. 투자 08
3. 대외거래 13
4. 소비자물가 16

Ⅱ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0
2. 고용 31
3. 인구 35

Ⅲ 금융·자산·재정

1. 금융시장 40
2. 에너지 및 원자재 44
3. 부동산 49
4. 재정 51

Ⅳ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54
2. 중국 57
3. 유로지역 59
4. 일본 61

Ⅴ 기술경제 동향

1.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역할 64
2.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획자의 역할 70

Ⅵ 경제 현안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최근 논의 검토 7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자물가의 진정 국면 진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이 위축되며 부진한 경기 흐름이 지속

내수는 4월 소매판매에서 전월대비 감소 전환, 투자에서 전월대비 증가 전환

- 2023년 4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감소하여 2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 전환하였고, 건설기성은 증가 전환

무역수지는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적자폭은 감소 추세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하여 8개월 연속 역성장했으며,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
  - 1~5월 누적 무역적자(273억달러)는 2022년 연간 적자의 57% 수준
-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IT 업종의 부진으로 감소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는 지속되나 상승폭은 축소

-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등에서 모두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였으나 전월(3.7%)대비 상승폭 축소

생산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

- 서비스업(3.1%)과 건설업(12.2%)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제조업(-9.0%)은 부진
  - 반도체 생산의 감소폭은 축소되는 추세(2월 -41.7% → 4월 -20.2%)

고용은 서비스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

-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1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2.7%로 양호한 고용 흐름 지속
- 인구는 자연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5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는 상승, 원/달러 환율은 하락

- 5월말 기준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전월대비 0.2%p 상승한 3.5%,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1.3% 하락한 1,322원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업종별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3월	4월	5월
전산업생산	5.3	4.6	5.2 (1.6)	5.6 (0.8)	5.5 (0.4)	1.9 (−1.5)	1.3 (1.0)	2.0 (1.2)	−0.8 (−1.4)	–
제조업생산	8.4	1.4	6.0 (3.2)	5.6 (−2.2)	1.4 (−2.6)	−6.7 (−6.7)	−10.0 (−0.5)	−7.7 (5.6)	−9.0 (−1.2)	–
서비스업생산	5.0	6.7	5.6 (0.8)	6.8 (2.9)	8.5 (1.7)	5.8 (0.1)	6.5 (1.5)	6.2 (−0.5)	3.1 (−0.3)	–
소매판매액	5.8	−0.3	2.6 (−0.7)	−0.2 (−1.0)	−0.9 (0.3)	−2.3 (−0.9)	−0.4 (1.0)	0.1 (0.1)	−1.1 (−2.3)	–
설비투자지수	9.6	3.3	−1.3 (0.4)	−2.4 (−0.4)	7.5 (8.6)	9.6 (−0.2)	−0.6 (−8.8)	1.8 (−2.4)	4.4 (0.9)	–
건설기성액	−6.7	2.7	−1.7 (0.5)	2.0 (−0.1)	3.5 (0.8)	6.4 (4.6)	11.5 (4.9)	12.0 (−4.3)	12.2 (1.2)	–
수출(통관)	25.7	6.1	18.4	13.0	5.8	−10.0	−12.7	−13.8	−14.3	−15.2
수입(통관)	31.5	18.9	30.2	23.0	22.6	3.1	−2.2	−6.4	−13.3	−14.0
경상수지(억달러)	852.3	298.3	148.8	99.9	8.8	40.8	−45.7	1.6	−7.9	–
소비자물가	2.5	5.1	3.8	5.4	5.9	5.3	4.7	4.2	3.7	3.3
취업자수 증감(천명)	369	816	1,001	880	780	604	397	469	354	351
실업률	3.7	2.9	3.5	3.0	2.5	2.6	3.2	2.9	2.8	2.7
원/달러환율	1,144	1,292	1,211	1,293	1,435	1,267	1,304	1,304	1,340	1,322
국고채금리(3년)	1.4	3.2	2.7	3.6	4.2	3.7	3.3	3.3	3.3	3.5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https://datalink.nabo.go.kr/2950922X20233/1

지 출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줄어 감소 전환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2월)5.1 → (3월)0.1 → (4월)-2.3
- 내 구 재(전월대비, %): ('23.2월)4.9 → (3월)0.3 → (4월)-1.7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2월)7.8 → (3월)-1.0 → (4월)-6.3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2월)4.2 → (3월)0.4 → (4월)-1.2

4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줄어들었으나 운송장비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2월)1.0 → (3월)-2.4 → (4월)0.9

4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을 중심으로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2월)3.6 → (3월)-4.3 → (4월)1.2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2월)5.1 → (3월)-8.1 → (4월)2.4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2월)-1.8 → (3월)10.1 → (4월)-2.4

5월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자폭은 감소 추세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3월)-13.8 → (4월)-14.3 → (5월)-15.2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3월)-6.4 → (4월)-13.3 → (5월)-14.0
- 무역수지(억달러): ('23.3월)-47.4 → (4월)-26.5 → (5월)-21.0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4.2 → (4월)3.7 → (5월)3.3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4.7 → (4월)3.4 → (5월)3.0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3.8 → (4월)4.0 → (5월)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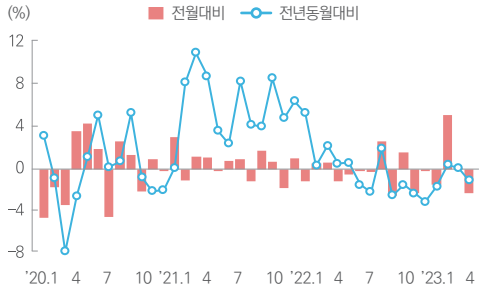
1 소비

4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감소 전환

■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2.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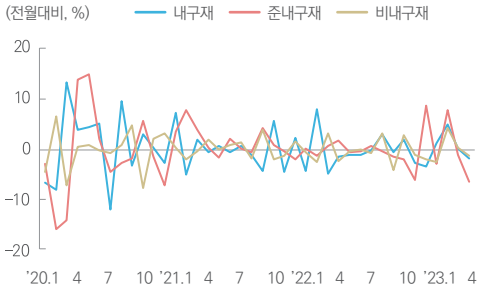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2월)5.1 → (3월)0.1 → (4월)-2.3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3.2월)4.5 → (3월)0.1 → (4월)-2.4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 내구연한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통신기기·컴퓨터, 승용차, 가구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1.7% 감소**

- 내구재(전월대비, %): ('23.2월)4.9 → (3월)0.3 → (4월)-1.7
- 통신기기·컴퓨터,(전월대비, %): ('23.2월)12.0 → (3월)-4.6 → (4월)-4.0

■ **준내구재는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6.3% 감소**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2월)7.8 → (3월)-1.0 → (4월)-6.3
- 의복(전월대비, %): ('23.2월)12.3 → (3월)-4.3 → (4월)-9.0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화장품, 차량연료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1.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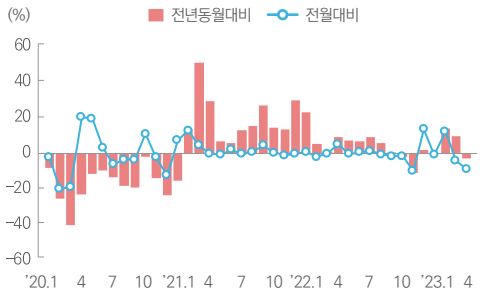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2월)4.2 → (3월)0.4 → (4월)-1.2
- 음식료품(전월대비, %): ('23.2월)7.0 → (3월)0.3 → (4월)-1.0

■ **소매업태별로 전문소매점(-2.6%)[1], 슈퍼마켓 및 잡화점(-3.4%), 백화점(-3.0%), 면세점(-1.5%), 무점포소매(-0.2%)[2]에서는 전월대비 판매가 감소**

-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2%), 편의점(0.6%), 대형마트(0.1%)에서 전월대비 판매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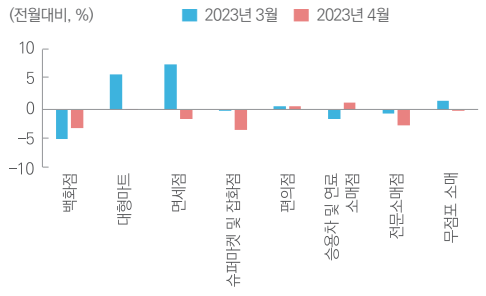
1)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2) 매장없이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의미

[그림 3] 의복 판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2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

■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등 내수 회복 기대가 반영되어 전월보다 2.9p 높은 98.0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인 현재생활형편(88, +1p), 생활형편전망(92, +2p), 가계수입전망(97, +1p), 소비지출전망(111, +1p), 현재경기판단(64, +6p), 향후경기전망(74, +6p) 지수가 모두 개선
- 소비자심리지수: ('23.2월)90.2 → (3월)92.0 → (4월)95.1 → (5월)98.0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 투자

가. 설비투자

4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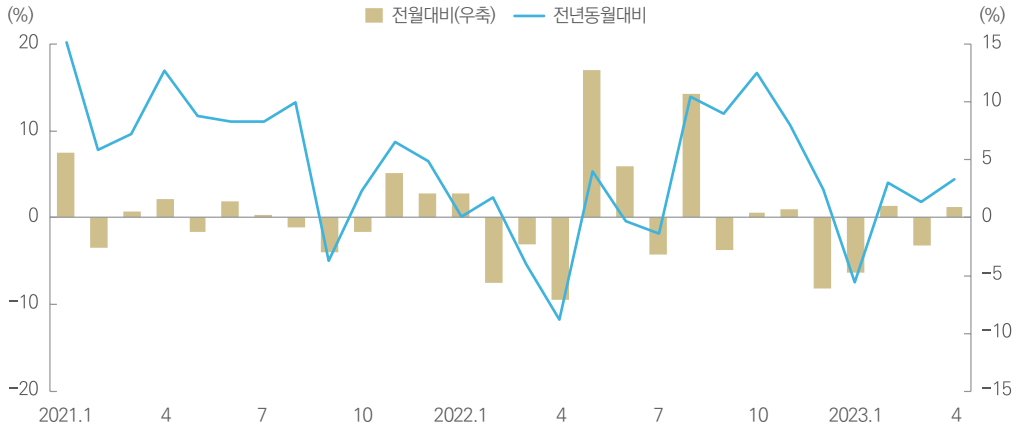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기계류(-0.6%)에서 줄어들었으나 운송장비(5.9%)에서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0.9%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2월)1.0 → (3월)-2.4 → (4월)0.9
- 기계류(전월대비, %): ('23.2월)1.8 → (3월)0.0 → (4월)-0.6
- 운송장비(전월대비, %): ('23.2월)-1.0 → (3월)-9.3 → (4월)5.9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3.8%)와 운송장비(6.1%)에서 모두 늘어나면서 4.4% 증가**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3.2월)4.1 → (3월)1.8 → (4월)4.4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3.2월)0.7 → (3월)1.1 → (4월)3.8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3.2월)14.9 → (3월)4.1 → (4월)6.1

[그림 6]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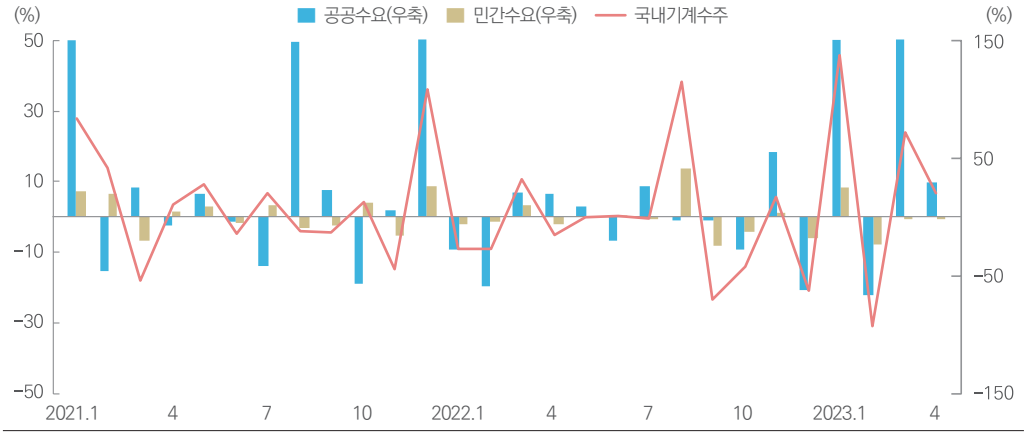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4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액」은 증가, 「기계류 내수출하」는 감소

■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1.8%)에서 감소하였으나 공공부문(29.2%)에서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6.7% 증가**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3.2월)-30.8 → (3월)23.9 → (4월)6.7
• 공공부문(전월대비, %): ('23.2월)-66.9 → (3월)319.5 → (4월)29.2
• 민간부문(전월대비, %): ('23.2월)-23.3 → (3월)-2.3 → (4월)-1.8

[그림 7]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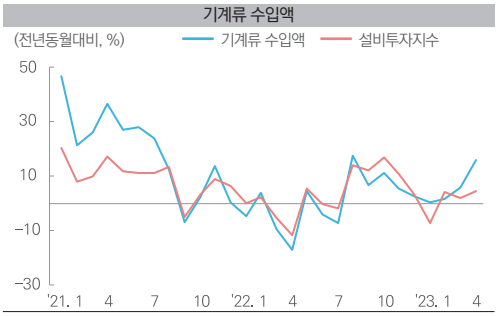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4.7% 감소**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3.2월)6.0 → (3월)0.7 → (4월)-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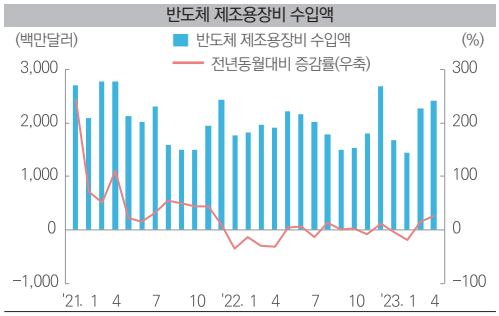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26.3%), 자동차 부품(7.4%)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3.2월)1.6 → (3월)5.6 → (4월)15.8

[그림 8]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4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을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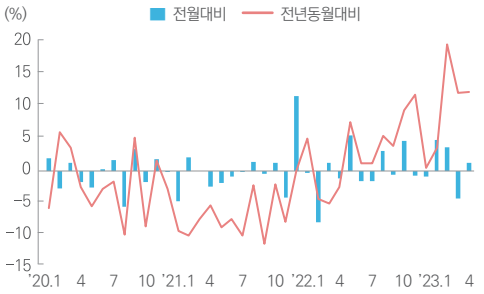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2.4%) 공사 감소에도 건축(2.4%) 공사가 늘어 전월대비 1.2%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2월)3.6 → (3월)-4.3 → (4월)1.2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2월)5.1 → (3월)-8.1 → (4월)2.4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2월)-1.8 → (3월)10.1 → (4월)-2.4

■ **전년동월대비로도 토목(-0.4%) 공사 감소에도 건축(16.5%) 공사가 늘어 1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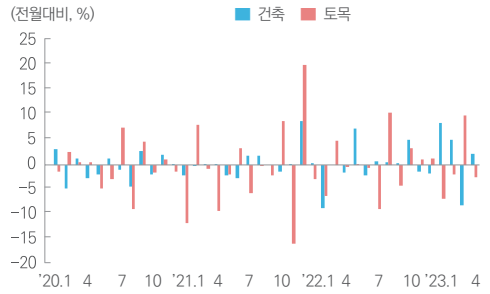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3.2월)19.5 → (3월)12.0 → (4월)12.2

[그림 9]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0]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4월 「건설기성(경상)[3]」은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

■ **건설기성(경상)은 건축과 토목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

- 건설(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26.0 → (3월)17.2 → (4월)15.8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 건축(17.0%)과 비주거용 건축(26.0%)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0.2% 상승**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31.9 → (3월)19.9 → (4월)20.2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26.3 → (3월)24.3 → (4월)17.0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42.2 → (3월)13.1 → (4월)26.0

3) 건설기성액의 세부항목에 대한 불변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공정에 대한 동향은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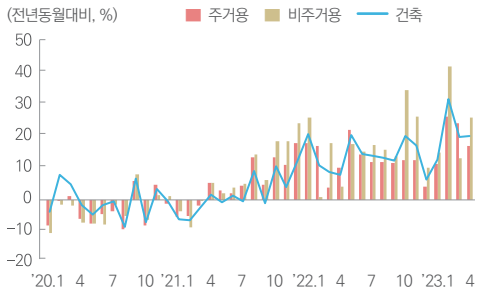
■ **토목부문(경상)은 일반토목(11.0%)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7.6 → (3월)10.1 → (4월)2.9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13.5 → (3월)19.1 → (4월)11.0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36.6 → (3월)-28.8 → (4월)-34.3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17.9 → (3월)8.3 → (4월)5.7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을 살펴보면 민간기관(19.3%)이 증가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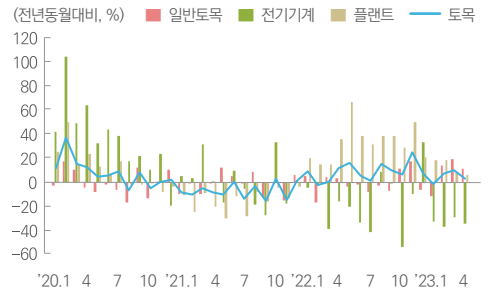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14.5 → (3월)8.3 → (4월)2.9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2월)29.3 → (3월)20.2 → (4월)19.3

[그림 11]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2]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4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과 건축 수주가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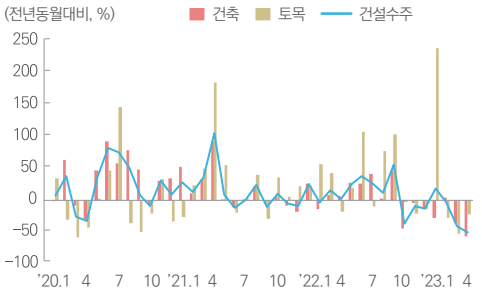
■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50.6% 감소**

- 건축 수주는 공장·창고(-82.7%), 주택(-63.2%)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56.1% 감소
- 토목 수주는 철도·궤도(-86.2%)의 수주가 크게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22.0% 감소
-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3.2월)-3.5 → (3월)-40.1 → (4월)-50.6

■ **발주처별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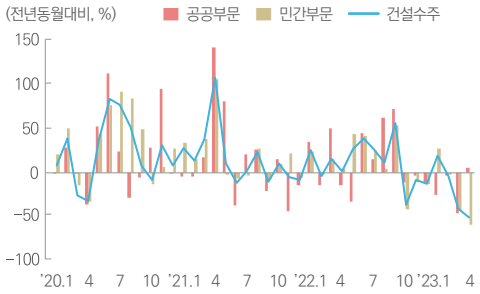
- 공공부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5.3% 늘었으나, 민간부문 수주가 전년동월대비 58.8% 감소

[그림 13]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4]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5월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자폭은 감소 추세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3월)-13.8 → (4월)-14.3 → (5월)-15.2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3.3월)22.9 → (4월)22.0 → (5월)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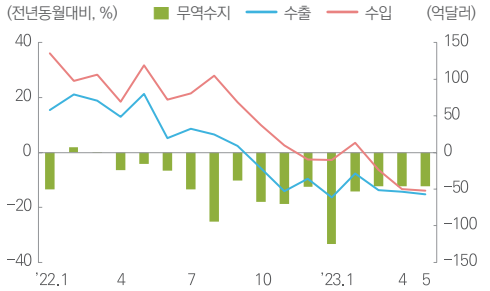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4.0% 감소한 543억달러 기록**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3월)-6.4 → (4월)-13.3 → (5월)-14.0

■ **무역수지는 21.0억달러 적자로 15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1월 이후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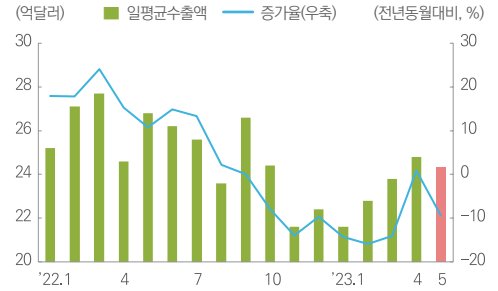
- 무역수지(억달러): ('23.3월)-47.4 → (4월)-26.5 → (5월)-21.0

[그림 15]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6] 일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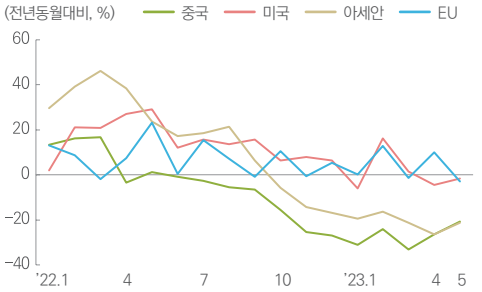
지역별 수출은 주요 지역에서 모두 감소

■ **중국, 미국, 아세안, EU, 중남미, 중동에 대한 수출 감소**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3.3월)-33.1 → (4월)-26.5 → (5월)-20.8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3.3월)1.4 → (4월)-4.4 → (5월)-1.5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3.3월)-21.3 → (4월)-26.4 → (5월)-21.2
- 대EU 수출(전년동월대비, %): ('23.3월)-1.4 → (4월)9.9 → (5월)-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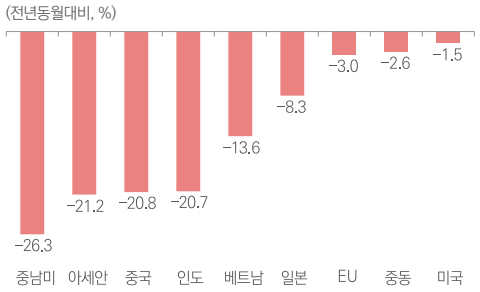
•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3.3월)-6.2 → (4월)-20.7 → (5월)-26.3
• 대중동 수출(전년동월대비, %): ('23.3월)21.4 → (4월)31.2 → (5월)-2.6

[그림 17]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8] 5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나. 경상수지

4월 「경상수지」는 7.9억달러 적자 기록

■ **경상수지는 −7.9억달러로 전년동월 1.3억달러 흑자에서 9.2억달러 감소**

• 경상수지(억달러): ('23.2월)-5.2 → (3월)1.6 → (4월)-7.9

■ **상품수지는 5.8억달러로 일반상품수지 적자 폭 감소로 7개월 만에 흑자 전환**

• 상품수지(억달러): ('23.2월)-13.0 → (3월)-12.3 → (4월)5.8
• 일반상품수지(억달러): ('23.2월)-27.4 → (3월)-26.9 → (4월)-7.2
•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 ('23.2월)13.7 → (3월)12.6 → (4월)10.2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나 여행수지 및 기타사업서비스[4]에서 적자 지속으로 −12.1억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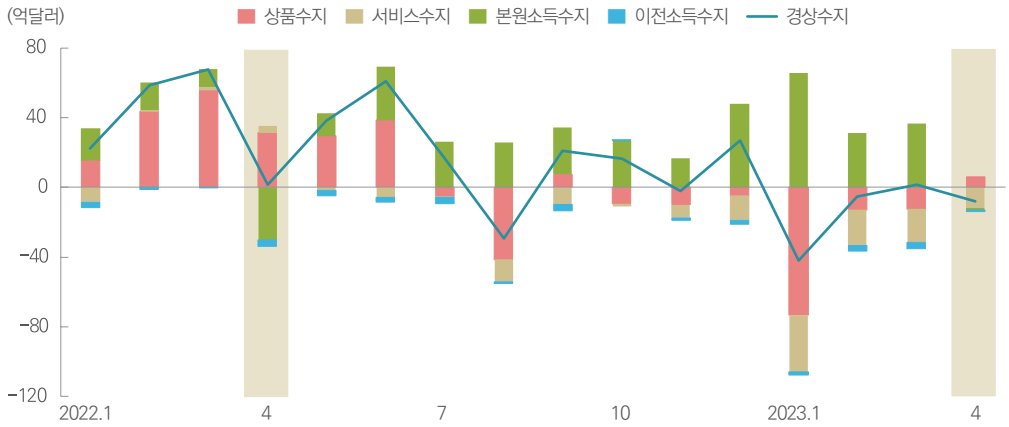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억달러): ('23.2월)-20.3 → (3월)-19.0 → (4월)-12.1
• 운송수지(억달러): ('23.2월)-2.2 → (3월)-0.2 → (4월)0.3
• 여행수지(억달러): ('23.2월)-10.1 → (3월)-7.4 → (4월)-5.0
• 기타사업서비스(억달러): ('23.2월)-7.2 → (3월)-10.1 → (4월)-6.0

4)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 등으로 구성

■ **본원소득수지는 -0.9억달러로 투자소득수지 적자폭 감소로 전년동월 -30.2억달러에 비해 적자폭 감소**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3.2월)31.2 → (3월)36.5 → (4월)-0.9
- 투자소득수지(억달러): ('23.2월)32.1 → (3월)37.8 → (4월)0.1

[그림 19]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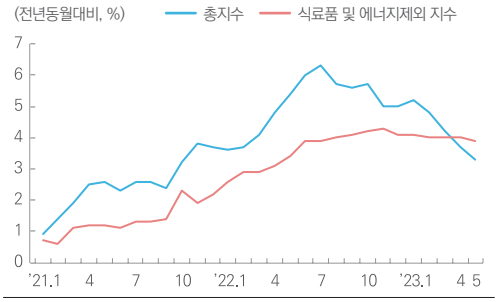
4 소비자물가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3.0%), 서비스(3.7%)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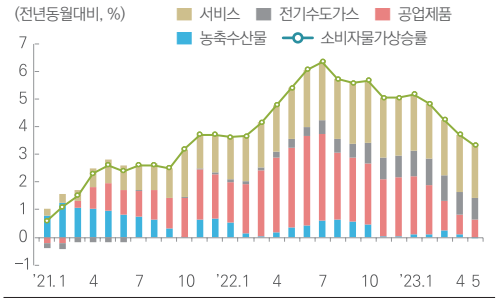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4.2 → (4월)3.7 → (5월)3.3
- 근원물가상승률[5](전년동월대비, %): ('23.3월)4.0 → (4월)4.0 → (5월)3.9

[그림 2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1]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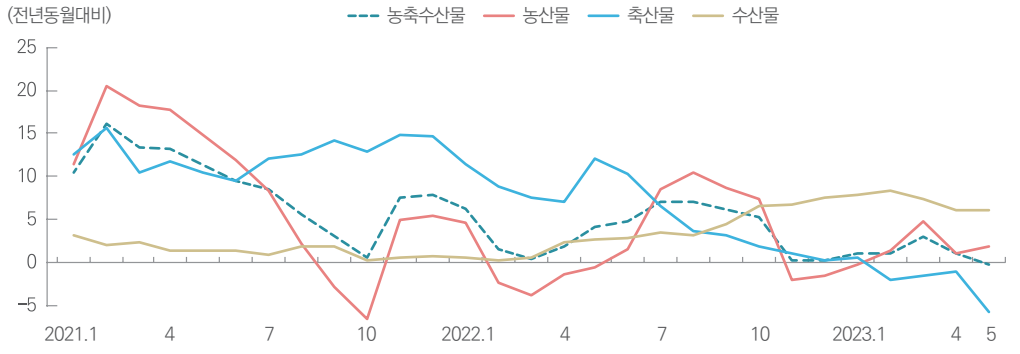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1.9%), 수산물(6.1%)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0.3% 하락**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3.0 → (4월)1.0 → (5월)-0.3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4.7 → (4월)1.1 → (5월)1.9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1.5 → (4월)-1.1 → (5월)-5.8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7.3 → (4월)6.1 → (5월)6.1

[그림 22]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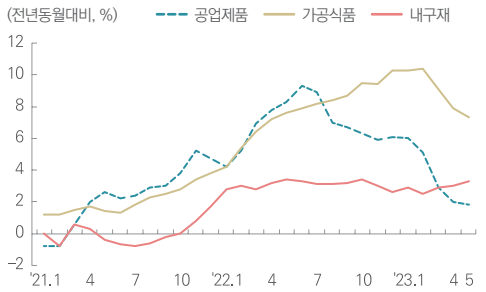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5) 근원물가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로 석유류(-18.0%)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가공식품(7.3%)에서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1.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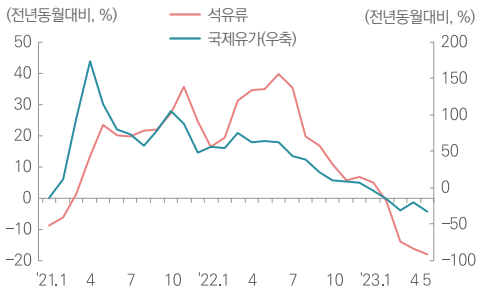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2.9 → (4월)2.0 → (5월)1.8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9.1 → (4월)7.9 → (5월)7.3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14.2 → (4월)-16.4 → (5월)-18.0
- 국제유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32.0 → (4월)-20.3 → (5월)-32.7

[그림 23]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4]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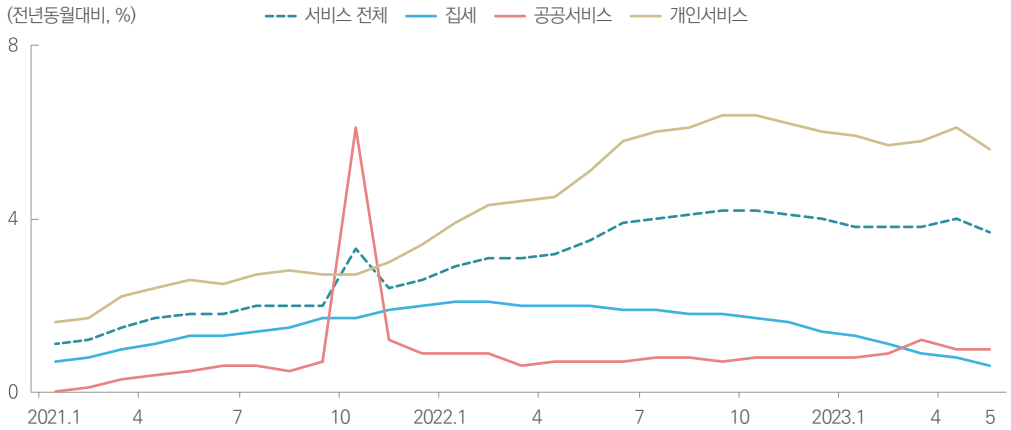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Bloomberg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3.7%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3.8 → (4월)4.0 → (5월)3.7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0.9 → (4월)0.8 → (5월)0.6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1.2 → (4월)1.0 → (5월)1.0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3월)5.8 → (4월)6.1 → (5월)5.6

[그림 25]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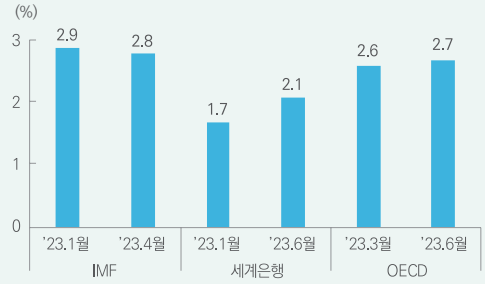
[BOX 1] 최근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6월 이후 국제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

- IMF는 4월 전망에서 SVB 파산('23.3.10일)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0.1%p 하향 조정
- 반면 6월 초 발표된 세계은행과 OECD의 전망에서는 중국경제 재개방과 물가상승률 둔화, 민간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성장률을 0.4%p와 0.1%p 상향 조정

[그림 26] 주요기관의 2023년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 경제



주요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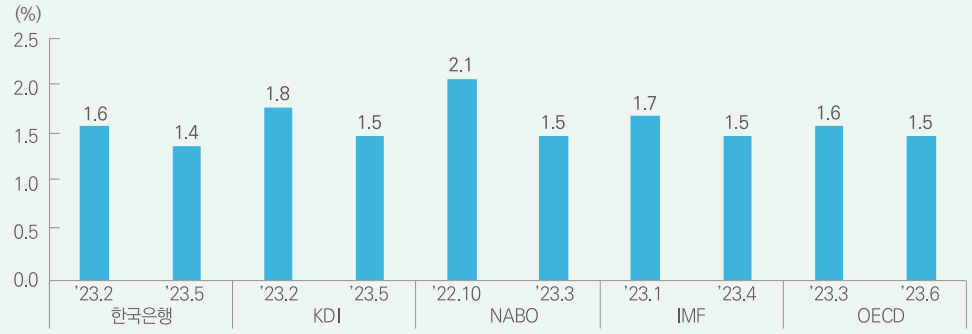
기관	전망시점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IMF	'23.1월	1.4	0.7	5.2	1.8
	'23.4월	1.6	0.8	5.2	1.3
	조정폭(%p)	+0.2	+0.1	-	-0.5
세계은행	'23.1월	0.5	0.0	4.3	1.0
	'23.6월	1.1	0.4	5.6	0.8
	조정폭(%p)	+0.6	+0.4	+1.3	-0.2
OECD	'23.3월	1.5	0.8	5.3	1.4
	'23.6월	1.6	0.9	5.4	1.3
	조정폭(%p)	+0.1	+0.1	+0.1	-0.1

주: 세계 경제성장률 산출시 IMF와 OECD는 PPP(Purchasing-power-parity) 환율, 세계은행은 시장환율을 적용
자료: 각 기관

■ 반면 국내·외 전망기관은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 전망기관들은 반도체 등 IT 경기 위축, 중국의 재개방 효과 지연, 고금리 등에 기인하여 당초 전망보다 회복 속도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

[그림 27] 주요기관의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각 기관

생산·고용·인구

4월 「생산」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 1.4% 각각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2월)3.5 → (3월)2.0 → (4월)-0.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2월)1.0 → (3월)1.2 → (4월)-1.4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조선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반도체, 화학, 섬유, 일반기계, 철강 등은 줄어 전년동월대비 9.0%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2월)-8.4 → (3월)-7.7 → (4월)-9.0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감소하였으나,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2월)8.6 → (3월)6.2 → (4월)3.1

5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 :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조업일수 감소(-1.5일)와 IT 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며 자동차와 일반기계만 증가하고 다른 산업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2월)-11.5 → (3월)-17.0 → (4월)-16.9 → (5월)-18.3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2월)6.5 → (3월)10.7 → (4월)-10.0 → (5월)5.1

■ **품목별로는 자동차(33.4%)와 일반기계(1.6%)만 증가하고, 조선(-48.0%), 반도체(-36.2%), 석유(-33.2%), 화학(-26.3%), 철강(-8.8%) 등 다른 산업은 모두 감소**

4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상승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3.2월)0.2 → (3월)0.5 → (4월)0.2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3.2월)-0.4 → (3월)-0.2 → (4월)-0.2

5월 「고용」은 서비스업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 **5월 취업자 수는 2,88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1만명 증가하였고,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전월대비 9.2만명 증가**

-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
- 고령층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세 지속, 15~29세 및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5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8만 3천명(-0.36%) 감소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41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팬데믹 이후 결혼 수요의 회복으로 3월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1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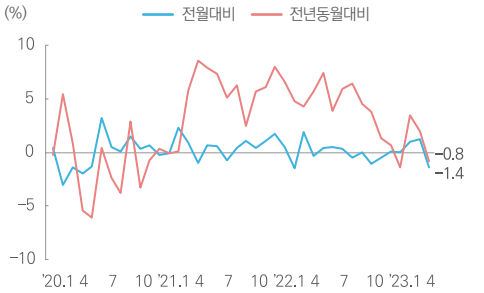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4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0.8%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은 증가하였으나 다른 부문에서는 모두 생산이 줄어 1.4%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2월)3.5 → (3월)2.0 → (4월)-0.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2월)1.0 → (3월)1.2 → (4월)-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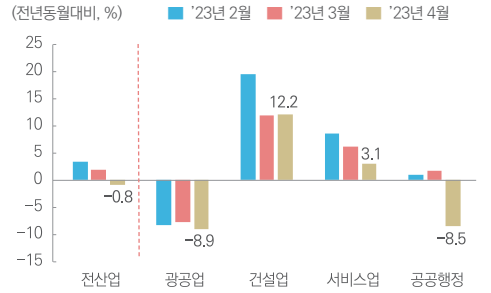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설업(12.2%)과 서비스업(3.1%)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8.9%)과 공공행정(-8.5%)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1.2%)만 증가하였고 광공업(-1.2%), 서비스업(-0.3%), 공공행정(-12.4%)은 감소**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4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전년동월대비: 자동차(16.6%), 조선(5.7%)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반도체(-20.2%), 화학(-20.5%), 섬유(-11.5%), 일반기계(-3.5%), 철강(-1.0%) 등은 줄어 9.0%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2월)-8.4 → (3월)-7.7 → (4월)-9.0

- **전월대비: 무선통신기기(13.4%), 가전(1.6%), 화학(0.7%), 반도체(0.5%), 자동차(0.5%)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컴퓨터·주변장치(-24.4%), 일반기계(-6.9%), 섬유(-5.0%), 철강(-1.6%), 석유(-1.2%), 조선(-1.1%) 등의 생산이 줄어 1.2% 감소**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3.2월)-2.8 → (3월)5.6 → (4월)-1.2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1.7	118.1	112.5	93.2	109.0	102.4	-1.2
제조업	6.9	4.7	4.8	-8.4	-7.7	-9.0	
반도체	29.7	26.8	31.4	-41.7	-26.9	-20.2	0.5
자동차	3.5	-7.2	-2.1	26.7	27.2	16.6	0.5
화학	-1.6	-0.4	1.6	-17.2	-19.7	-20.5	0.7
일반기계	-1.1	-7.3	-12.3	7.6	4.5	-3.5	-6.9
철강	0.6	1.3	-2.8	-2.3	0.1	-1.0	-1.6
석유	1.7	6.1	2.2	-0.6	1.6	-0.3	-1.2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4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업(-2.7%), 정보통신업(-3.6%)은 감소하였으나, 예술·스포츠·여가(16.6%), 운수·창고업(12.5%), 금융·보험업(9.9%), 부동산업(2.5%), 숙박·음식점업(2.0%) 등이 늘어 3.1%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2월)8.6 → (3월)6.2 → (4월)3.1
- **전월대비: 정보통신업(1.8%), 금융·보험업(2.0%), 보건·사회복지(0.5%) 등은 증가하였으나,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3%), 도소매(-3.1%), 부동산업(-1.9%), 운수·창고업(-1.3%), 숙박·음식점업(-1.0%), 금융·보험업(0.6%) 등이 줄어 0.7%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3.2월)2.1 → (3월)-0.5 → (4월)-0.3

[표 2]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2			2023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99.7	110.8	110.7	108.3	117.7	114.1	-0.3
서비스업	4.7	4.3	6.5	8.6	6.2	3.1	
도매 및 소매	1.2	3.1	3.0	6.1	0.5	-2.7	-3.1
숙박 및 음식점	9.8	5.5	19.0	23.3	17.8	2.0	-1.0
금융 및 보험	3.2	6.0	11.3	14.4	10.6	9.9	2.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5월 중 주요 11대 산업[6]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증가

■ **전년동월대비: 자동차(33.4%)와 일반기계(1.6%)만 증가하고, 조선(-48.0%), 반도체(-36.2%), 컴퓨터·주변장치(-33.5%), 석유(-33.2%), 화학(-26.3%), 철강(-8.8%) 등 다른 산업은 모두 줄어 18.3% 감소**

- 11대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2월)-11.5 → (3월)-17.0 → (4월)-16.9 → (5월)-18.3
- 조업일수 감소(-1.5일)와 IT 업종의 부진 지속으로 주요 품목과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줄며 11대 산업의 수출이 감소

■ **전월대비: 조선(-36.9%), 일반기계(-3.5%), 가전(-0.6%) 등의 수출은 줄었으나, 컴퓨터·주변장치(26.2%), 석유(16.4%), 반도체(15.5%), 철강(10.8%), 자동차(1.0%), 화학(0.4%) 등의 수출이 늘어 5.1%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2월)6.5 → (3월)10.7 → (4월)-10.0 → (5월)5.1

[표 3]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5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23.3	21.8	15.1	22.7	-11.5	-17.0	-16.9	-10.0	-18.3	5.1
반도체	23.8	38.0	15.8	15.0	-42.4	-34.5	-41.0	-25.8	-36.2	15.5
자동차	4.9	-6.5	2.2	15.0	36.3	39.4	27.5	-5.9	33.4	1.0
화학	29.5	15.7	7.3	14.4	-18.1	-24.8	-23.7	-7.3	-26.3	0.4
일반기계	6.0	7.6	3.6	7.1	12.7	-0.9	7.9	-3.4	1.6	-3.5
철강	39.5	26.7	20.7	26.4	-9.9	-10.8	-10.7	-4.3	-8.8	10.8
조선	15.8	-35.7	-16.7	43.6	-10.6	-26.2	59.1	45.9	-48.0	-36.9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전년동월대비 급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버용 출하 부진, 높은 재고량 등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6.2% 감소**

- D램 고정가(달러): ('22.6월)3.35 → (9월)2.85 → (12월)2.21 → ('23.3월)1.81 → (4월)1.45 → (5월)1.40
- 낸드 고정가(달러): ('22.5월)4.81 → (9월)4.30 → ('22.10월~'23.2월)4.14 → (3월)3.93 → (5월)3.82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2.5월)115.4(15.0%) → ('23.5월)73.7(-36.2%)

6)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등의 공급 정상화로 생산차질이 완화되며 대기수요가 실현, 미국·EU 등으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자동차·SUV 등의 수출 확대, 완성차 생산·판매 증가에 따른 현지 생산공장의 부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3.4% 증가**

- 역대 1~5월 완성차 수출 순위/누계액(억달러): 역대 1~5월 완성차 수출 순위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5월)41.5(18.9%) → ('23.5월)62.0(49.4%)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22.5월)19.5(7.5%) → ('23.5월)19.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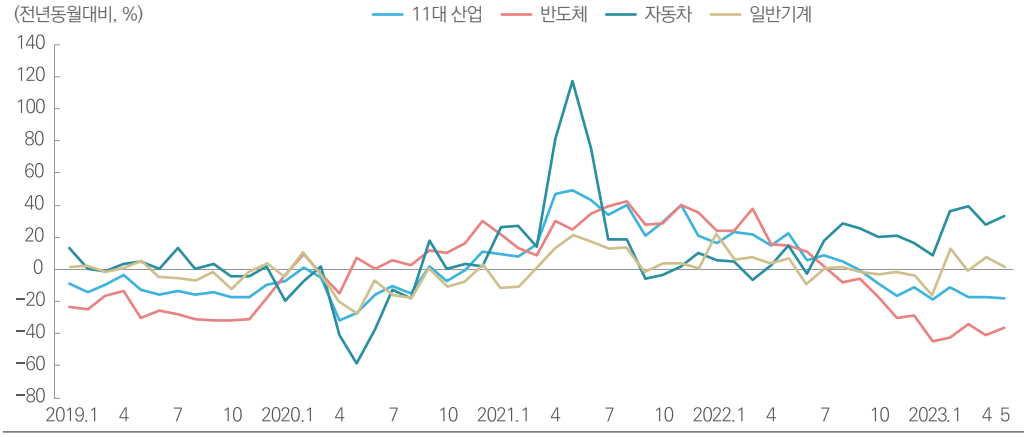
■ **일반기계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냉난방공조 수출 감소 등 하락요인에도 불구, 미국·EU의 친환경 정책 도입으로 히트펌프 수출 증가, 신흥국 내 제조장비 및 기계설비 등 설비투자 활성화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5월)44.0(7.1%) → ('23.5월)44.7(1.6%)

■ **화학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의 회복세에도 불구, 제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화학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6.3% 감소하며 감소세 지속**

- 화학 수출단가(달러/톤)/증감률: ('22.5월)1,655 → ('23.5월)1,370e(-17.8%)
- 화학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5월)51.9(14.4%) → ('23.5월)38.3(-26.3%)

[그림 3]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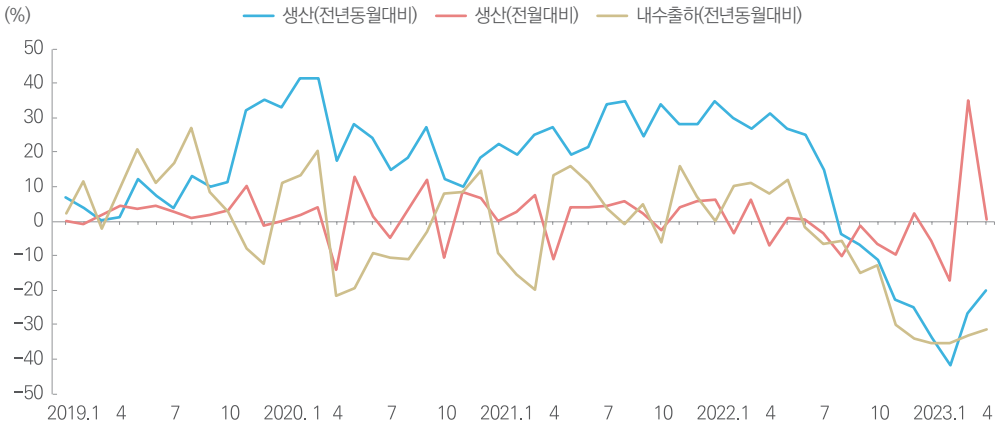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는 전월 수준 유지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2% 감소, 전월대비로는 0.5%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41.7 → (3월)-26.9 → (4월)-20.2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17.1 → (3월)35.1 → (4월)0.5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35.3 → (3월)-33.2 → (4월)-31.4

[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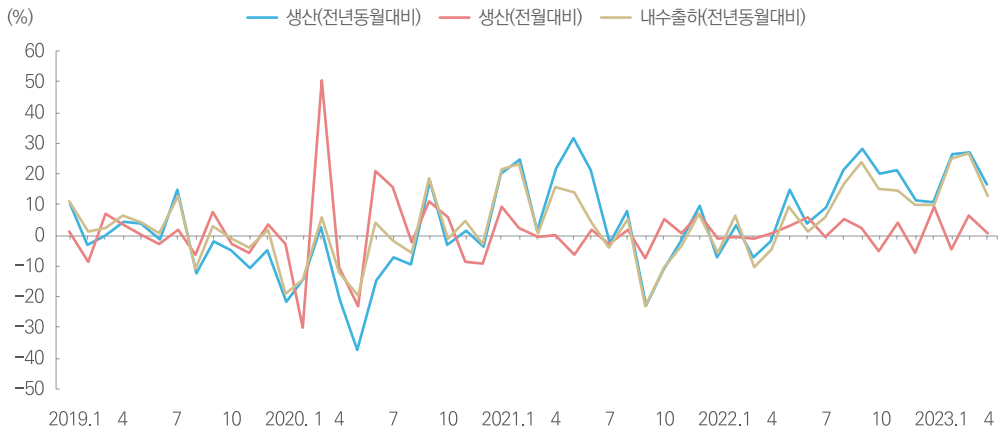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동차: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는 전월 수준 유지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 전월대비로는 0.5%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26.7 → (3월)27.2 → (4월)16.6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4.4 → (3월)6.5 → (4월)0.5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25.2 → (3월)26.8 → (4월)13.1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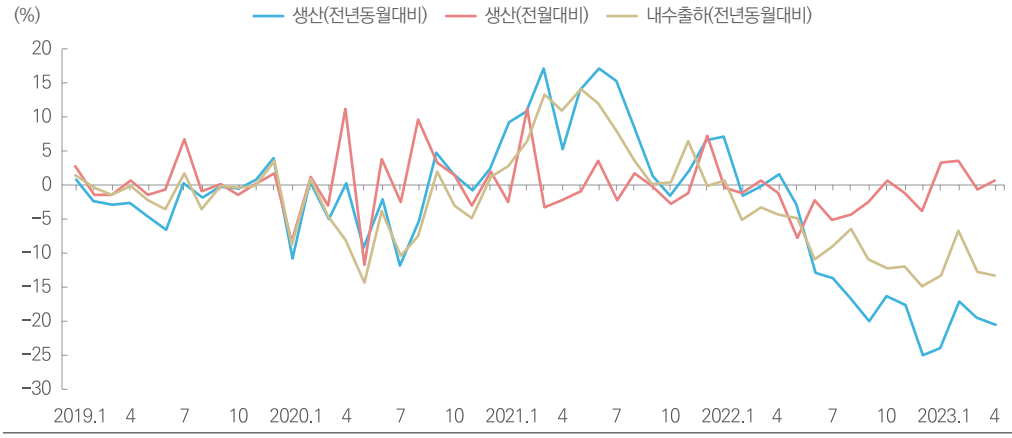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화학 산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4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37.5%)과 화학섬유 제조업(−38.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5%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일부 업체의 정기보수 완료 후 생산 재개로 0.7% 증가**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진단용 시약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약 80% 줄어들었고 화학섬유 제조업의 경우 폴리아미드 섬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해외 이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 기인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 -17.2 → (3월) -19.7 → (4월) -20.5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 3.4 → (3월) -0.7 → (4월) 0.7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 -6.7 → (3월) -12.8 → (4월) -13.3

[그림 6] 화학산업 생산·내수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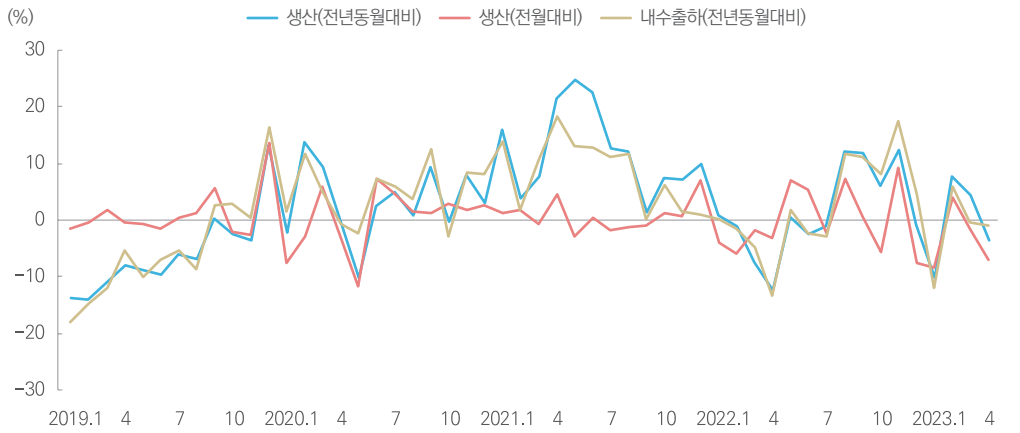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일반기계: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4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3.5%, 6.9%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7.6 → (3월)4.5 → (4월)-3.5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4.1 → (3월)-1.6 → (4월)-6.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5.8 → (3월)-0.4 → (4월)-1.1

[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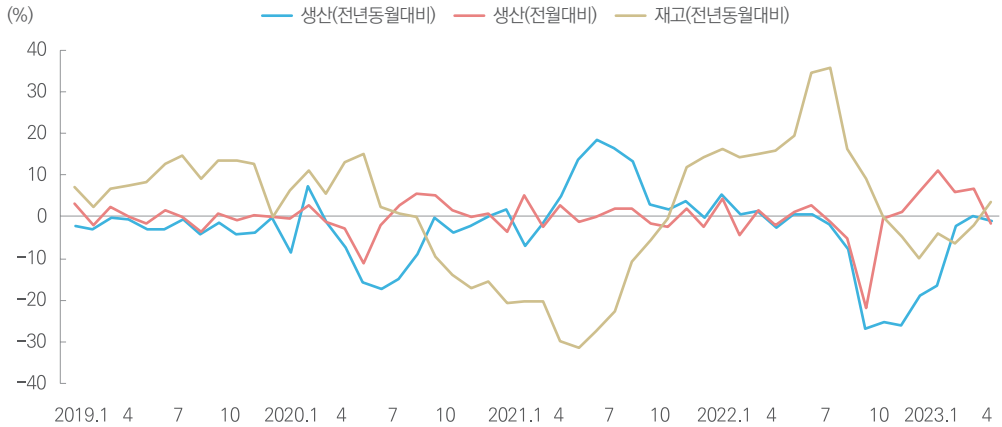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철강: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로는 각각 -1.0%, -1.6%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2.3 → (3월)0.1 → (4월)-1.0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5.8 → (3월)6.7 → (4월)-1.6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6.2 → (3월)-2.2 → (4월)3.4

[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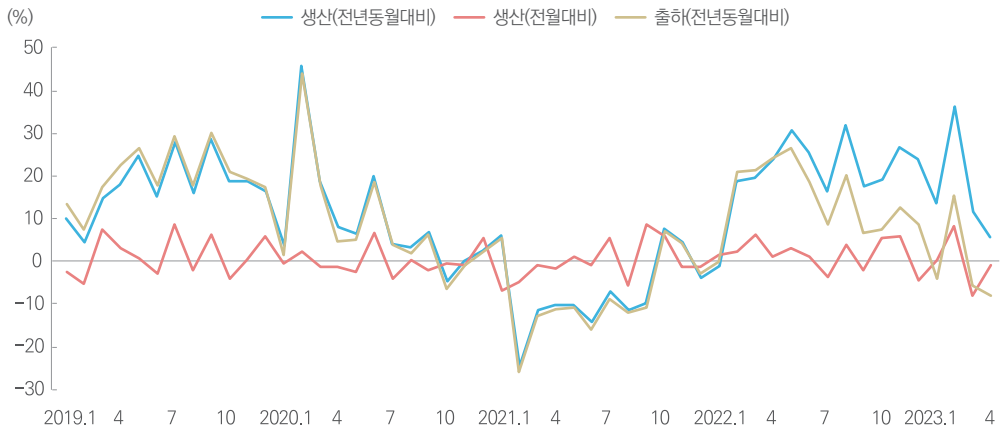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선: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는 증가, 전월대비로는 감소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전월대비로는 1.1%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36.2 → (3월)11.6 → (4월)5.7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8.2 → (3월)-8.1 → (4월)-1.1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15.4 → (3월)-5.7 → (4월)-8.0

[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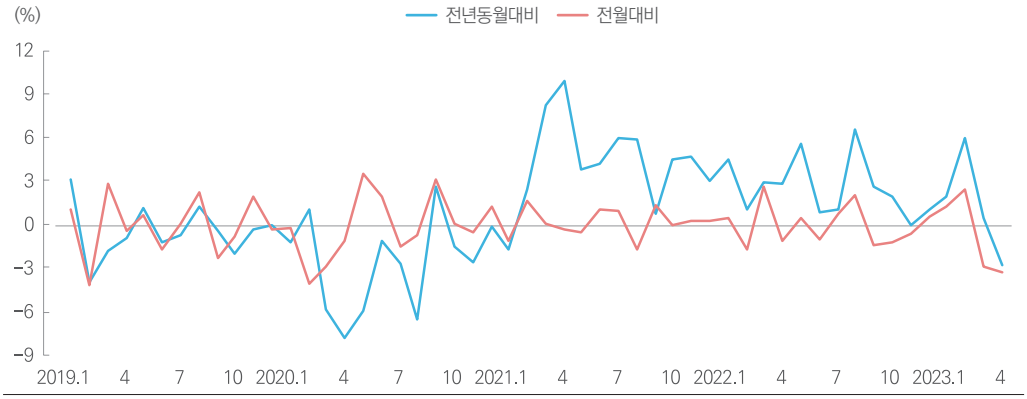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도매 및 상품중개업(-4.3%)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0.9%)을 중심으로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관련 생산[7]이 줄면서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이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하였고, 의약품 소비가 줄면서 기타상품 전문소매업이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전월대비로는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10.4%),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7.2%),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6.6%) 등을 중심으로 3.1%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 6.1 → (3월) 0.5 → (4월) -2.7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 2.5 → (3월) -2.8 → (4월) -3.1

[그림 10] 도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금융 및 보험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은행 및 저축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4.4%로 둔화된 반면 보험 및 연금업 생산이 28.9% 늘면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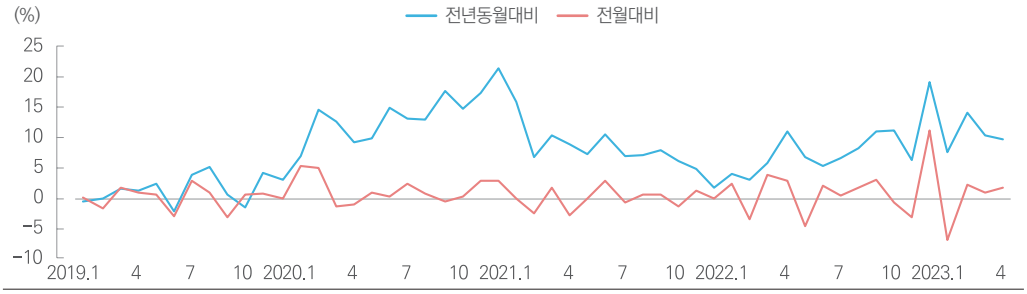
- 공제업을 중심으로 은행권 보다 금리가 상향된 저축상품의 판매가 증가한 데 기인[8]

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생산이 2023년 2월 3.6%에서 3월 -8.5%, 4월 -16.0%로 감소

8) 예를 들면, 군인공제회의 경우 예금형 목돈수탁(비과세종합) 저축의 금리가 2023년 4월 기준 1~2년 만기지급식 기준 5.9%, 매월 지급식 기준 5.74%에 해당함. 참고로 4월 예금형 목돈수탁(비과세종합) 저축의 수탁 잔고는 3.6조원이며 전월대비 4.5% 증가

• 전월대비로는 은행, 신용조합을 중심으로 대출량이 늘면서 2.0% 증가[9)]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 14.4 → (3월) 10.6 → (4월) 9.9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 2.5 → (3월) 1.2 → (4월) 2.0

[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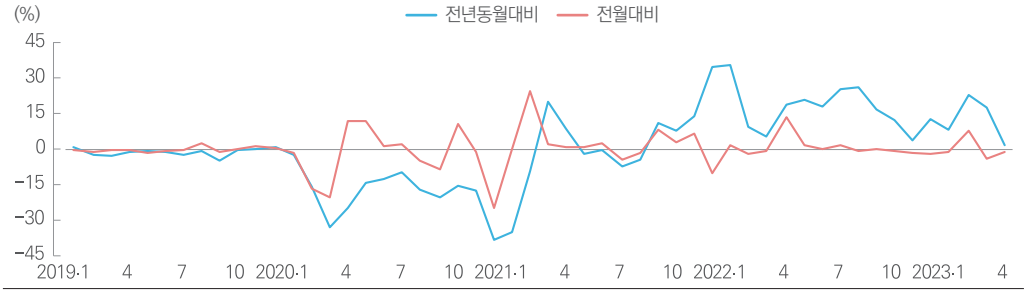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숙박 및 음식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미세먼지 감소로 외출량이 증가하면서 숙박업(12.7%)을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10)]**

• 전월대비로는 기저효과(2월, 8.2%)로 인해 3월(-3.7%)에 이어 1.0%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3.2월) 23.3 → (3월) 17.8 → (4월) 2.0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3.2월) 8.2 → (3월) -3.7 → (4월) -1.0

[그림 12]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9)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2023년 4월 기준으로 7.5조원(대기업 3.1조원, 중소기업 4.4조원) 순증하여 1,197조원에 이른다.(한국은행, "2023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5.11.) 참고로 기업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수요로, 중소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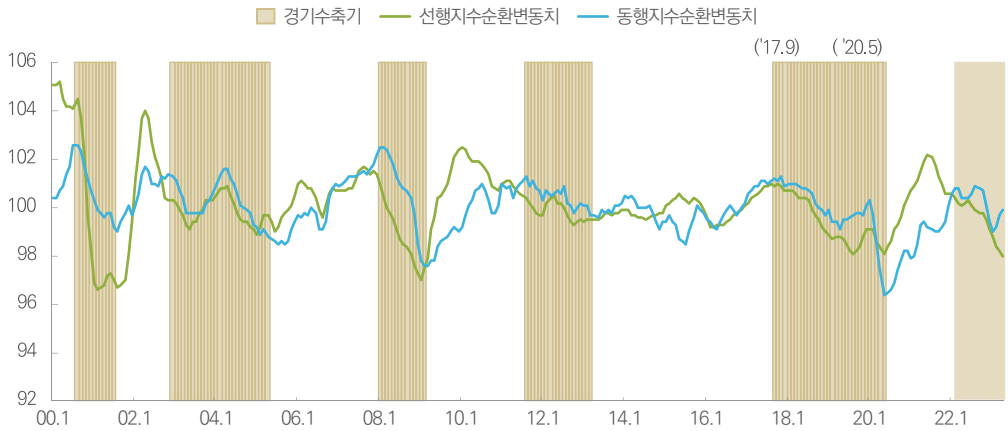
10) 여신금융협회 "국내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카드승인액이 2023년 4월 기준 12.8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함. 다만, 2023년 1월 국내 카드승인액이 11.6조원(전년동월대비 24.8%), 2월 11.6조원(48.8%), 3월은 12.8조원(35.8%)으로, 전년대비증가율이 2월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라. 경기종합지수

4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9.9)는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3.2월)0.2 → (3월)0.5 → (4월)0.2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98.0)는 코스피, 경제심리지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건설수주액, 장단기금리차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3.2월)-0.4 → (3월)-0.2 → (4월)-0.2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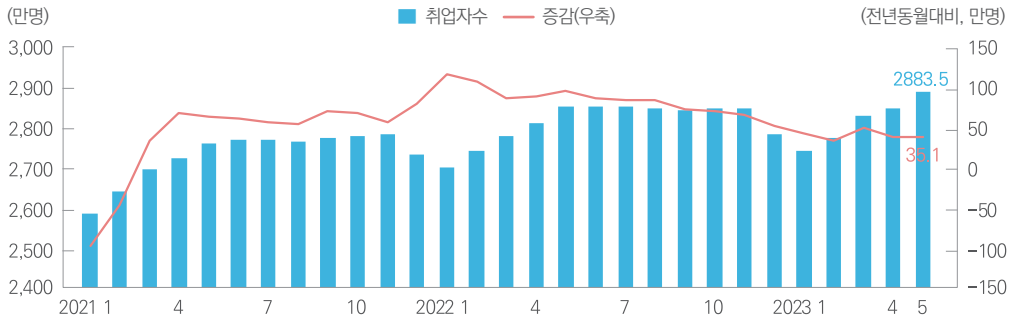
2 고용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1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

■ **5월 취업자 수는 2,88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1만명 증가하였고,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전월대비 9.2만명 증가**

-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46.9 → (4월)35.4 → (5월)35.1
- 계절조정 취업자 수(전월대비, 만명): ('23.3월)9.4 → (4월)-4.7 → (5월)9.2

[그림 14] 전체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5.3%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23.3월)64.1 → (4월)64.4 → (5월)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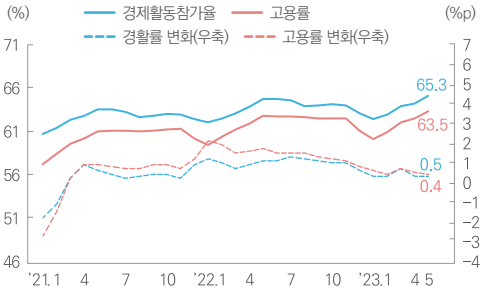
■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3.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고용률(%): ('23.3월)62.2 → (4월)62.7 → (5월)63.5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2.7%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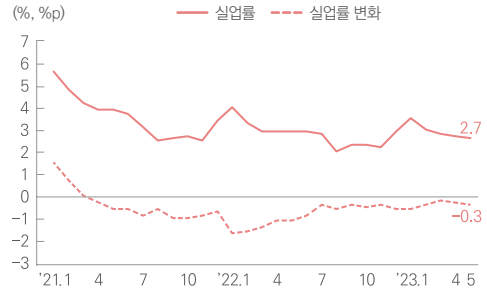
- 실업률(%): ('23.3월)2.9 → (4월)2.8 → (5월)2.7

[그림 15]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6]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 서비스업은 증가세 지속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9만명 감소하여 5개월 연속 감소**

• 제조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4.9 → (4월)-9.7 → (5월)-3.9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9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50.0 → (4월)46.9 → (5월)46.9

• 숙박·음식점업(+12.8만명)과 보건·복지업(+16.6만명), 전문과학기술업(+11.1만명)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도소매업(-3.1만명)과 부동산업(-3.0만명) 등은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6.6만명 감소하여 6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감소 폭도 점차 확대**

• 건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2.0 → (4월)-3.1 → (5월)-6.6

5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15~29세 및 40대에서 감소한 가운데, 고령층은 큰 폭 증가

■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7.9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나,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축소**

• 고령층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54.7 → (4월)44.2 → (5월)37.9

■ **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9만명 감소하여 7개월 연속 감소**

• 15~29세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8.9 → (4월)-13.7 → (5월)-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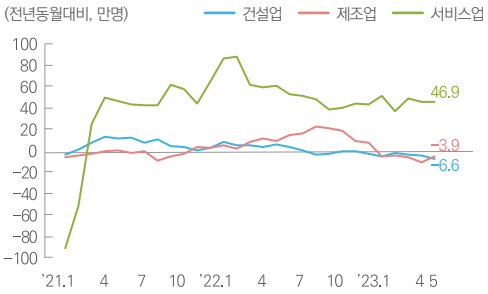
■ **5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감소 지속**

• 3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2.4 → (4월)1.5 → (5월)7.0

• 4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6.3 → (4월)-2.2 → (5월)-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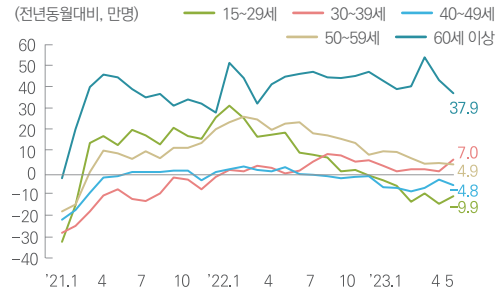
• 5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5.0 → (4월)5.5 → (5월)4.9

[그림 17]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8]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직업별 취업자 수」[11]는 중숙련 직업 취업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 **고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5만명 증가하였으며 '21년 3월 이후 27개월째 증가세 유지**

• 고숙련 직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31.4 → (4월)32.7 → (5월)39.5

■ **중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명 감소하였으며 6개월째 감소세 유지**

• 중숙련 직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10.3 → (4월)-14.5 → (5월)-9

■ **저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5만명 증가하였으며 18개월째 증가세 유지**

• 저숙련 직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19.1 → (4월)12.2 → (5월)0.5

5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상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증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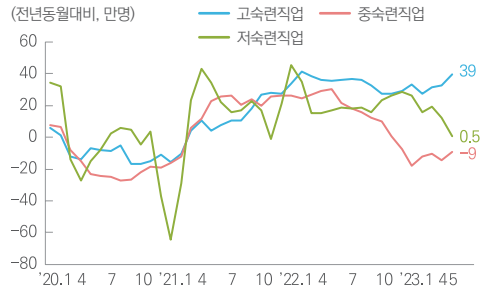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상용근로자의 높은 증가세로 인한 결과**

•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49.7 → (4월)46.4 → (5월)59.1
•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7.4 → (4월)-10 → (5월)-15.8
•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1.1 → (4월)-7.6 → (5월)-13.3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명 증가하였으며, 3개월째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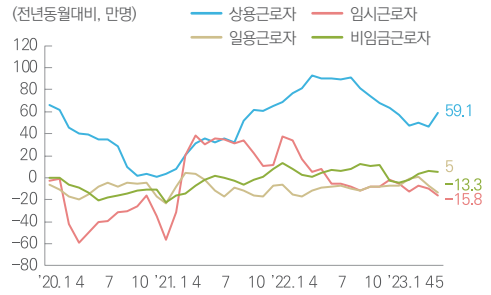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3월)3.6 → (4월)6.5 → (5월)5

[그림 19]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 직업의 숙련 별 분류는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을 인용. "고숙련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성

5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는 종사자 300인 사업체 기준 전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증가하며, 최근 5개월간 비슷한 증가세 유지**

-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 ('23.3월)11.4(3.8) → (4월)11.8(3.9) → (5월)11.4(3.8)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0.9%증가하였으며,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

-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 ('23.3월)35.5(1.4) → (4월)23.5(0.9) → (5월)23.7(0.9)

4월 「빈 일자리 수」는 전년동월대비 4개월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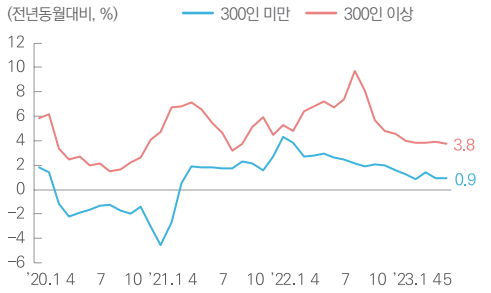
■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976개 감소하여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300인 이상 빈 일자리 수(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 ('23.2월)0.15(1.7) → (3월)0.19(2.5) → (4월)-0.98(-9.6)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3155개 감소하여 4개월째 감소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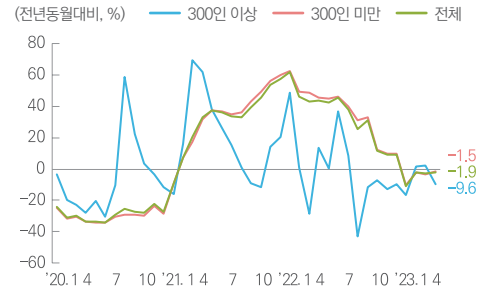
- 300인 미만 빈 일자리 수(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 ('23.2월)-4.6(-2.2) → (3월)-6.8(-3.2) → (4월)-3.2(-1.5)

[그림 21]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빈 일자리 수 변화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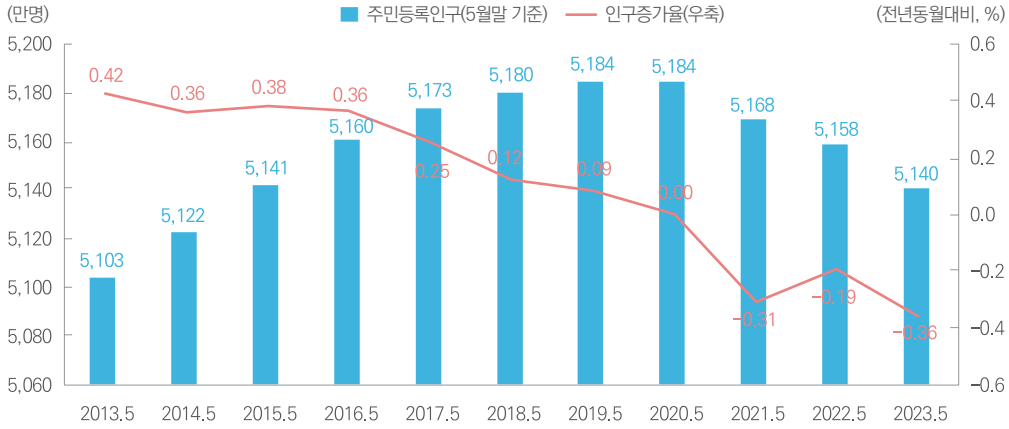
3 인구

5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천명(0.36%) 감소

■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5월 주민등록인구는 5,14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6% 감소**

• 각 연도 5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0.31%, 2022년 −0.19%, 2023년 −0.36%로 감소 지속

[그림 23]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3.5월~2023.5월)



주: 각 연도 5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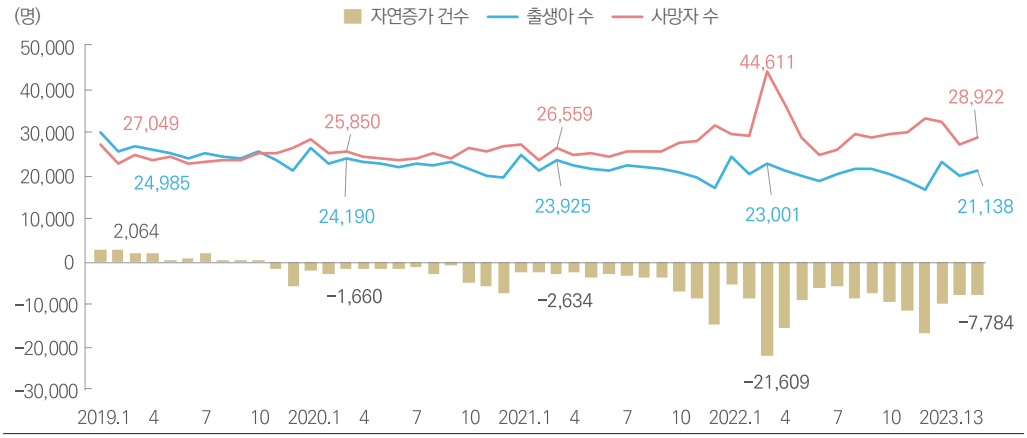
3월 「출생아 수」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사망자 수」를 하회하면서 인구 자연증가는 41개월째로 자연감소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3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1,863명(8.1%) 감소한 2만 1,138명을 기록**

■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5,689명(35.2%) 감소한 2만 8,922명을 기록**

• 작년 3월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였음

[그림 24]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월~2023.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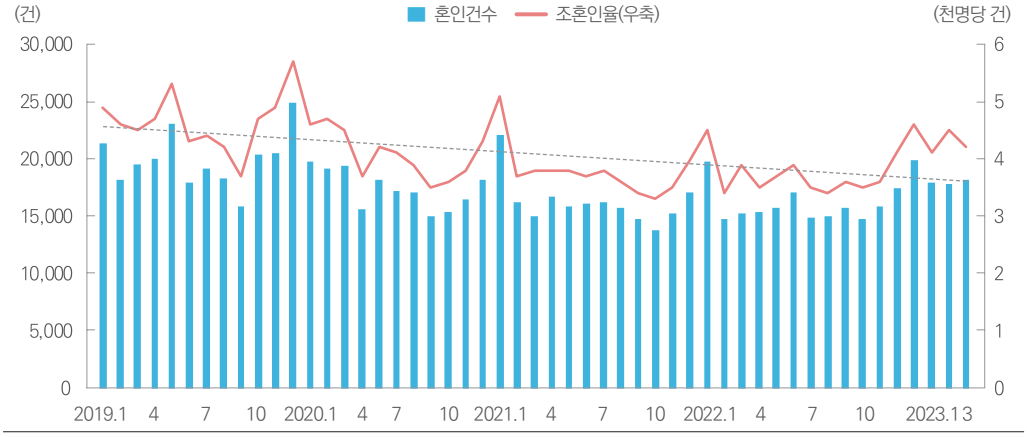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팬데믹 이후 결혼수요의 회복으로 3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3월 혼인건수는 1만 8,19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876건(18.8%) 증가하였고, 조혼인율은 4.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7건 증가**

• 각 연도 3월 기준 조혼인률은 2019년 4.5건, 2020년 4.5건, 2021년 3.8건. 2022년 3.5건

[그림 25]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월~2023.3월)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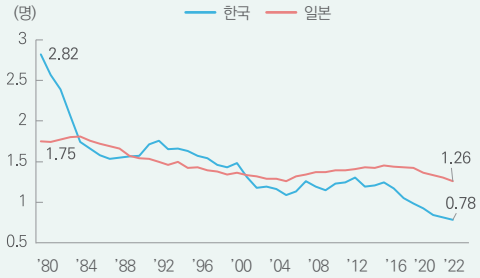
[BOX 2] 일본의 저출산 대책 관련 최근 논의

■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7년 연속 감소하는 등 저출산 기조 확산

•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

- ('16년)1.44 → ('18년)1.42 → ('20년)1.33 → ('22년)1.26

[그림 26]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일본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

[표 4]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연도	한국	일본
2019	36.6조원	5.1조엔(46.5조원)
2020	44.4조원	5.9조엔(53.7조원)
2021	46.7조원	5.6조엔(51.0조원)

주: 한국은행 2023.06.15. 환율 적용(911.00원/100엔)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내각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아동미래전략방침」초안을 발표(2023.6.1.)

• 일본 정부는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까지를 출산율 반등의 '라스트 찬스'로 보고 어린이·육아 지원을 강화할 계획

- 향후 3년간(2024~2026년)의 집중대처를 위한 '가속화플랜'을 실시하고 연간 약 3.5조엔(약 31.8조원)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

•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재원 확보 방안은 올해 말까지 구체화

- 재원은 세출 개혁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속한 실시를 위해 필요에 따라 '어린이특례공채'를 발행

• **(아동수당)** 부모 소득 관계없이 만 0세~만 2세, 만 3세~고등학생은 각각 월 1.5만엔(13.7만원), 1.0만엔(9.1만원),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3.0만엔(27.3만원) 지원

• **(출산·육아지원)** 출산·육아 응원 교부금은 10만엔(91.1만원) 지원, 출산육아일시금을 42만엔(382.6만원)에서 50만엔(455.5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까지 인상

• **(유연근무제)** 만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직원은 단축·재택근무, 시차출퇴근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으며, 야간 업무 등 잔업 면제 검토

금융·자산·재정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외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국고채금리」는 상승, 「환율」은 하락

- **5월 국고채금리는 대외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3월말)3.3 → (4월말)3.3 → (5월말)3.5
- **5월 원/달러 환율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조정 압력 등으로 전월말 대비 하락**
  - 원/달러 환율: (3월말)1,304 → (4월말)1,340 → (5월말)1,322

5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가격 및 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하락

-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10.1%, 17.4%, 2.3% 하락**
  - 석유 가격(달러/배럴): ('23.3월)76.5 → (4월)82.5 → (5월)74.1
  - 석탄 가격(달러/톤): ('23.3월)187.2 → (4월)194.3 → (5월)160.5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3.3월)16.0 → (4월)14.4 → (5월)14.0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각각 2.5%, 3.1%, 6.4%, 0.8% 하락**
  - 농산물 지수: ('23.3월)115.4 → (4월)117.7 → (5월)114.8
  - 식품 지수: ('23.3월)134.8 → (4월)137.3 → (5월)133.1
  - 금속·광물 지수: ('23.3월)108.4 → (4월)107.4 → (5월)100.5
  - 귀금속 지수: ('23.3월)144.1 → (4월)152.7 → (5월)151.5

5월 전력부문의 「연료비단가」는 가스발전을 중심으로 하락

- **1kWh 발전을 위한 연료비단가는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이 각각 전월대비 8.0%와 1.5% 하락**
-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원자력 6.6%, 석탄발전은 3.7% 증가했으나, 가스발전과 신재생 및 기타는 각각 3.3%, 7.9% 감소**

5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시장회복 기대심리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0.49% → −0.18%)과 지방(−0.45% → −0.26%)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국(−0.47% → −0.22%)의 하락폭이 축소**

2023년 1월~4월 「누계 총수입」은 211.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1조원(−13.9%) 감소

- **자산시장 둔화, 기업실적 악화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8.9조원과 15.8조원 감소**

2023년 1월~4월 「누계 총지출」은 240.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5조원(−9.9%) 감소

-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의 축소 등으로 예산지출은 7.1조원 감소, 기금지출은 8.6조원 감소**

1 금융시장

가. 금리

5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는 혼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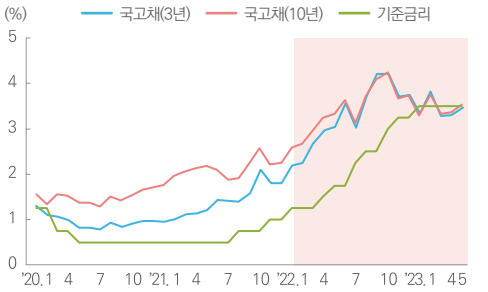
■ **2023년 5월 국고채금리는 대내외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상승**

- 5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5%로 전월말 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도 전월말 대비 0.2%p 상승한 3.5%를 기록
- 한편 5월말 기준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0.3%p, 0.2%p 낮은 수준

■ **한편 5월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완화 등으로 상승한 반면 유로존 및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보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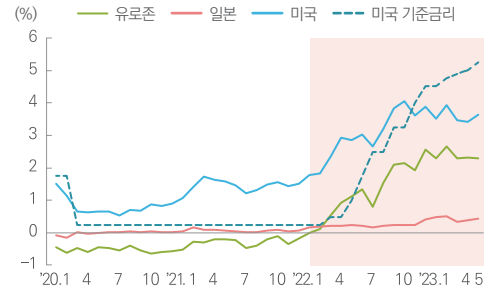
-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4월말 3.4%에서 5월말 3.6%로 상승한 반면, 5월말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2.3%,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0.4% 수준에서 보합
- 한편 미 연준은 5월 3일 기준금리를 상단기준 5.00%에서 5.25%로 0.25%p 인상하였으며, 5.25%는 2007년 이후 최고치

[그림 1] 우리나라 국고채 및 기준 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2] 주요국 국채(10년)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Datastream

5월 「회사채 금리」는 상승한 반면 4월 「기업대출 금리」는 하락

■ **5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기업의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

- 5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7bp 상승한 4.1%,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전월말 대비 7bp 상승한 10.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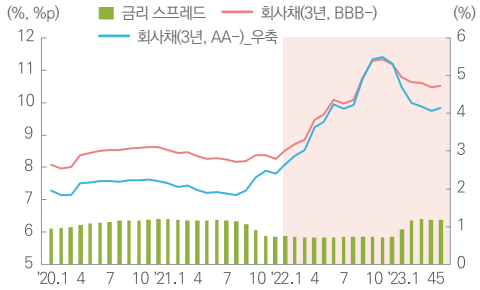
• 회사채(3년, 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 금리 상승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

■ **4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대기업대출 금리가 중소기업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대출 금리차는 확대**

• 4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18bp 하락한 5.0%,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14bp 하락한 5.1%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9bp에서 13bp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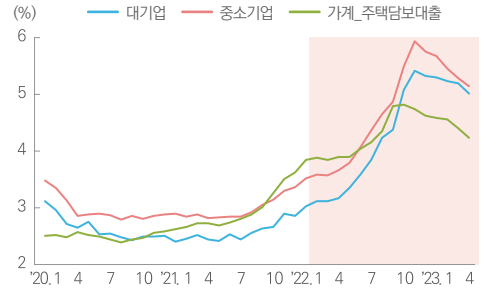
• 한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2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23년 4월 전월 대비 16bp 하락한 4.2%를 기록

[그림 3]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4]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월평균 금리
주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 5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 반면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전반적 상승 양상

■ **5월 원/달러 환율은 부채한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등으로 전월말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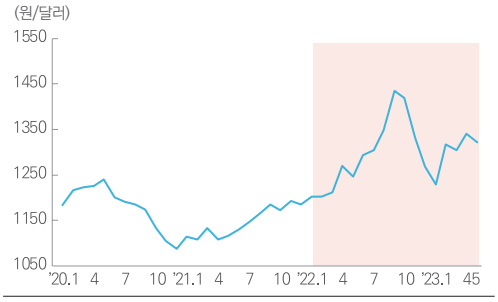
• 5월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22원으로 전월말 1,340원 대비 1.3% 하락

■ **5월 유로화, 엔화,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

• 5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3.1%, 2.2%, 2.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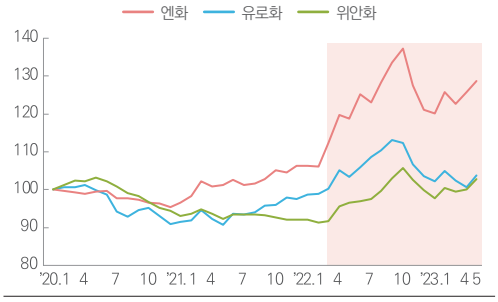
• 한편 5월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0.1%, 6.3%, 3.0% 상승

[그림 5]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6]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추이



주1) 2020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주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다. 주가

5월 「국내 주가」는 상승한 반면 「글로벌 주가」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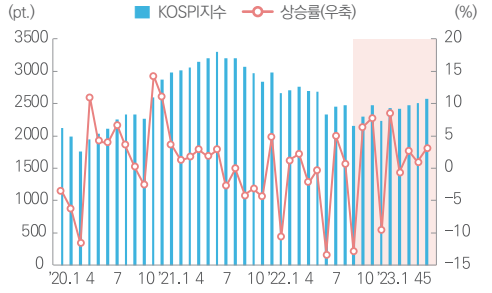
■ **국내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유입, 대외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상승**

- 5월말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502) 대비 3.0% 상승한 2,577을 기록
- 한편 5월말 KOSPI지수는 전년말 2,236 대비로는 15.2% 상승한 수준

■ **외국인 투자자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국내 주식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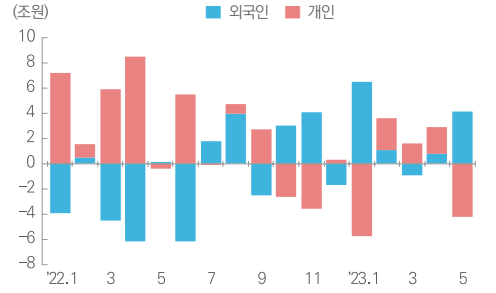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는 2023년 들어 12.1조원, 월평균 2.0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가운데 5월 4.1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
- 한편 개인 투자자는 2023년 들어 5.6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며 5월에도 1.9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

[그림 7] KOSPI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그림 8]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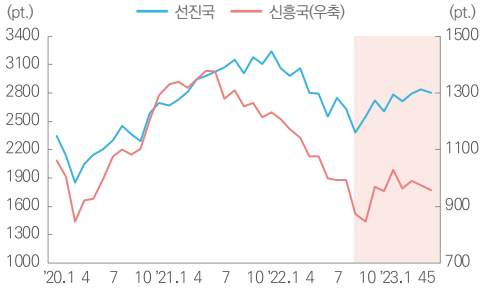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 **5월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전반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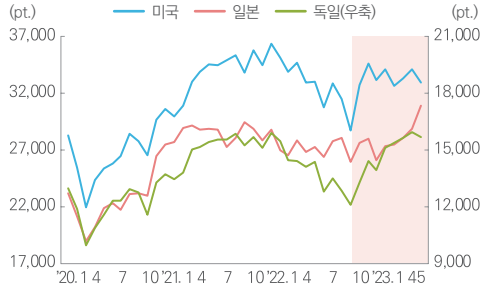
- 5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1.2%, 신흥국 주가는 1.8% 하락
- 한편 5월말 기준 미국, 독일은 전월말 대비 각각 3.5%, 1.6% 하락하였으나 일본은 7.0% 상승

[그림 9]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10]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5월 「석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원유 가격은 배럴당 74.1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7%, 전월대비 10.1% 하락**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3.3월)76.5 → (4월)82.5 → (5월)74.1

5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석탄 가격은 톤당 160.5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6.8%, 전월대비 17.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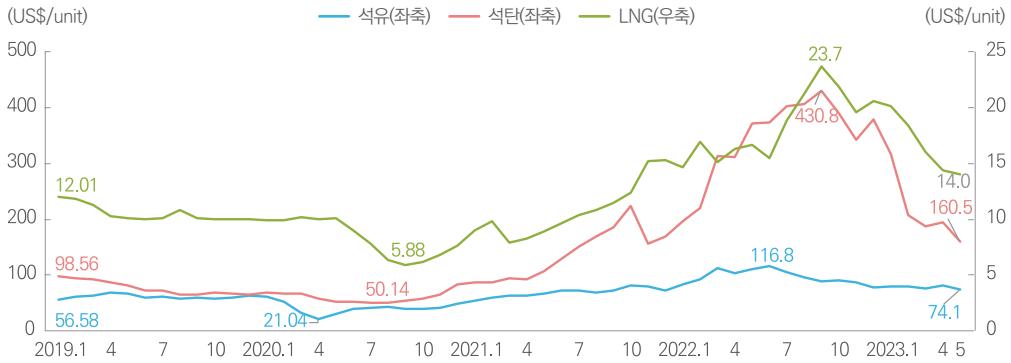
- 석탄 가격(달러/톤): ('23.3월)187.2 → (4월)194.3 → (5월)160.5

5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14.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9%, 전월대비 2.3% 하락**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12)]): ('23.3월)16.0 → (4월)14.4 → (5월)14.0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2.1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73.6%, 전월대비 0.7% 하락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10.1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65.3%, 전월대비 25.2% 하락

[그림 11]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12)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5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농산물 지수는 114.8로 팜핵유, 해바라기씨유, 대두유, 코코넛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0%, 전월대비 2.5% 하락**

• 농산물 지수: ('23.3월)115.4 → (4월)117.7 → (5월)114.8

5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식품 지수는 133.1로 밀가루, 새우, 양고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3%, 전월대비 3.1% 하락**

• 식품 지수: ('23.3월)134.8 → (4월)137.3 → (5월)133.1

5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금속·광물 지수는 100.5로 염화칼륨, 아연, 주석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9%, 전월대비 6.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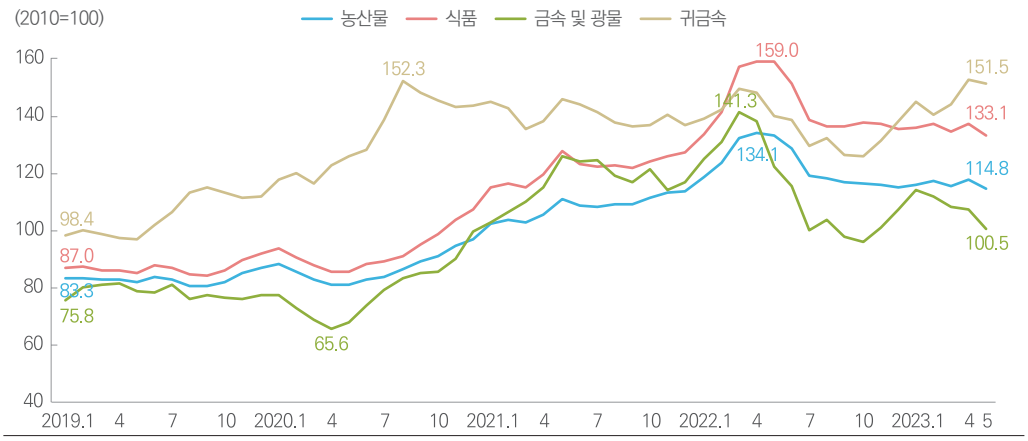
• 금속·광물 지수: ('23.3월)108.4 → (4월)107.4 → (5월)100.5

5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귀금속 지수는 151.5로 은, 백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상승한 반면, 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 하락**

• 귀금속 지수: ('23.3월)144.1 → (4월)152.7 → (5월)151.5

[그림 12]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BOX 3] 국내 에너지 수요

■ **2023년 3월 「최종에너지 소비」[13]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최종에너지 소비는 액화천연가스, 열,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액화천연가스(-21.9), 열(-21.3), 도시가스(-15.7), 신재생 및 기타(-4.2), 전력(-3.6), 석유(2.6), 석탄(3.3)
- 전월대비로는 석유, 석탄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0.8% 증가
  - 전월대비 증감률(%): 석유(14.2), 석탄(13.9), 신재생 및 기타(4.8), 전력(-8.3), 도시가스(-22.9), 열(-32.8), 액화천연가스(-54.9)

[표 1]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

	2020	2021	2022p	2023p				
				1월	2월	3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03,773	215,797	213,509	20,061	18,122	18,269	-2.0	0.8
전년동기대비	-3.8	5.9	-1.1	-7.0	-5.0	-2.0		
석탄	31,152	32,251	29,888	2,535	2,226	2,537	3.3	13.9
석유	95,850	103,310	101,210	8,480	7,701	8,797	2.6	14.2
액화천연가스	2,109	2,203	2,230	127	289	131	-21.9	-54.9
도시가스	22,632	23,382	24,046	3,458	2,924	2,254	-15.7	-22.9
전력	42,768	44,809	46,039	4,317	4,041	3,706	-3.6	-8.3
열	2,592	2,701	2,872	523	376	253	-21.3	-32.8
신재생 및 기타	6,669	7,142	7,223	621	565	592	-4.2	4.8

주: 1) 2022년, 2023년 자료는 잠정치(p)
2) 개정된 에너지밸런스 기준으로 작성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13)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 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나. 전력수급동향

2023년 5월의 「연료비단가」는 가스발전을 중심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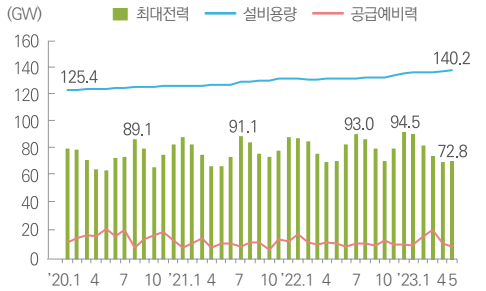
■ **5월 최대전력은 72.8GW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하고, 전월대비 0.7% 상승하였으며, 전력공급 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9.6GW, 전력공급예비율 13.1%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14)]**

- 5월 평균기온은 17.9℃로 평년(17.3℃)보다 다소 높았으며, 동해안 일부 지역은 푄현상이 더해지면서 일최고기온이 30℃ 이상으로 5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기록하였으나,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음

■ **5월 1kWh 발전을 위한 연료비단가는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이 각각 전월대비 8.0%와 1.5%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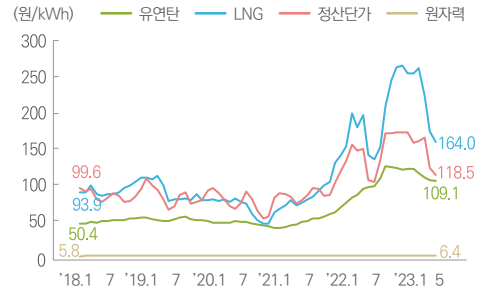
-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하는데,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109.1원으로 전월(110.7원)대비 1.5%, 최고치인 8월(130.5원)대비 16.4% 하락하였으며,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64.0원으로 최고치인 2022년 11월(270.4원)보다 39.3% 하락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15)]는 118.5원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7.0%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7.2% 하락했으며, 최고치인 2022년 10월(177.7원)보다 33.3% 하락

[그림 13] 월별 최대전력 및 전력공급예비력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4]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5월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5월 전력거래량[16)]은 43,647GWh로 전월대비로는 3.0%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6% 감소**

14)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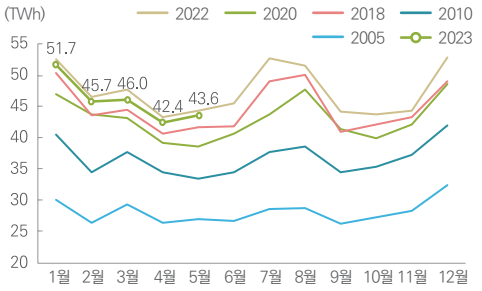
15)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시 전력공급자(전력구매자)가 받아야 할 금액(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계산한 단위당 가격으로 전력공급비용을 의미

16)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원자력 6.6%, 석탄발전은 3.7% 증가했으나, 가스발전과 신재생 및 기타는 각각 3.3%, 7.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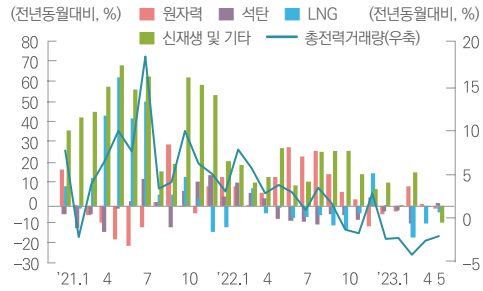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1.5%, 석탄 30.3%, 가스 26.2%, 신재생 및 기타 11.0% 순

[그림 15]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6]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4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3.3%, 1,457GWh 감소했는데, 산업부문의 수요가 952GWh 감소하여 증가분의 65.3%를 차지**

• 전년동월대비 서비스부문은 2.6%, 공공부문은 1.9% 감소했으며,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2.6% 감소

• 총 전력수요에서 각 부문의 비중은 산업 53.9%, 서비스부문 27.4%, 가정부문 14.0%, 공공부문 4.6% 였음

■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4.1% 감소했으며,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의 감소폭이 가장 컸음**

[표 2]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20	2021	2022		2023			
				4월	3월	4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09,270	533,431	547,933	43,758	44,095	42,301	-3.3	-4.1
전년동기대비	-2.2	4.7	2.7	4.4	-3.8	-3.3		
가정부문	74,073	77,558	78,557	6,097	5,788	5,936	-2.6	2.6
공공부문	23,623	25,026	25,890	1,995	2,200	1,958	-1.9	-11.0
서비스부문	144,444	148,315	155,548	11,894	12,426	11,587	-2.6	-6.8
산업부문	267,129	281,532	287,937	23,772	23,681	22,820	-4.0	-3.6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3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3 부동산

5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시장회복 기대심리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22%, 수도권 –0.18%, 지방은 –0.26%로 하락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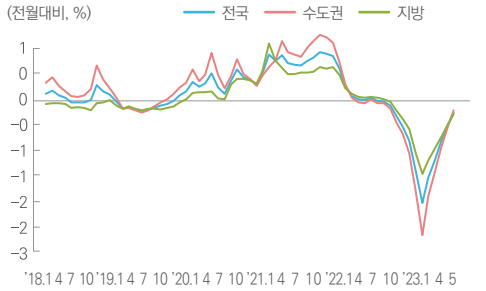
- 시장회복 기대심리 등으로 하락폭 축소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 발생
- 176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7개→28개)은 증가, 보합 및 하락지역(169개→148개)은 감소

5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하락폭이 축소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전국 –0.26%, 수도권 –0.23%, 지방 –0.28%로 전월보다 하락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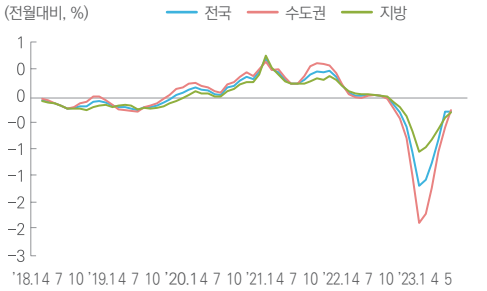
-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지역의 임차수요 회복으로 하락폭 축소
-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 지속

[그림 17]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18]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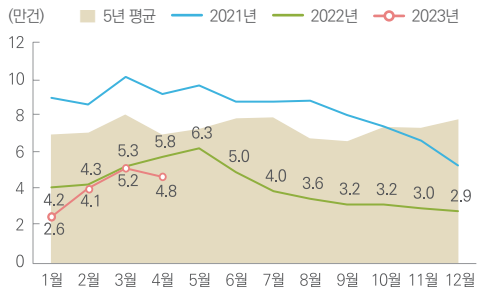
4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 은 전월대비 9.1% 감소하였으며, 연간 15.2% 감소

■ **주택매매 거래량은 4만 7,555건으로 전월대비 9.1% 감소, 전년동월대비 18.6% 감소**

- 수도권(2만 830건)은 전월대비 8.3% 감소, 지방(2만 6,725건)은 전월대비 9.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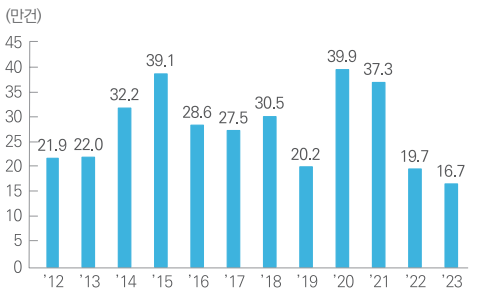
■ **4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16만 6,840건으로 전년동기(19만 6,756건)대비 15.2% 감소**

[그림 19] 월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0] 연도별 4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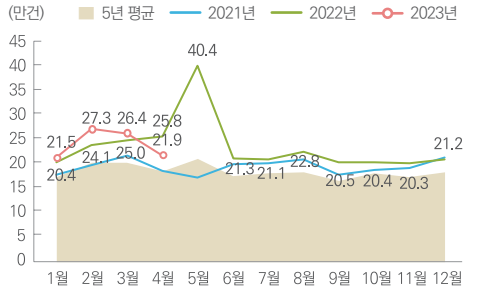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17.0% 감소하였으며, 연간 1.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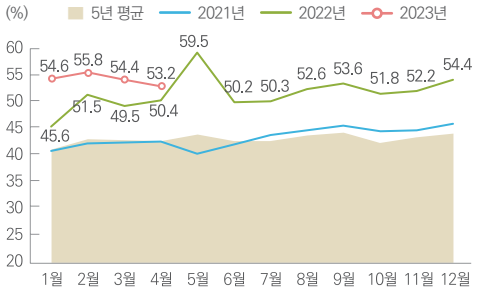
-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9,317건으로 전월대비 17.0% 감소,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
  - 전세(10만 2,642건)는 전월대비 14.8% 감소, 월세(11만 6,675건)는 전월대비 18.8% 감소
- **4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97만 1,449건으로 전년동기(95만 3,775건)대비 1.9% 증가**

[그림 21]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2]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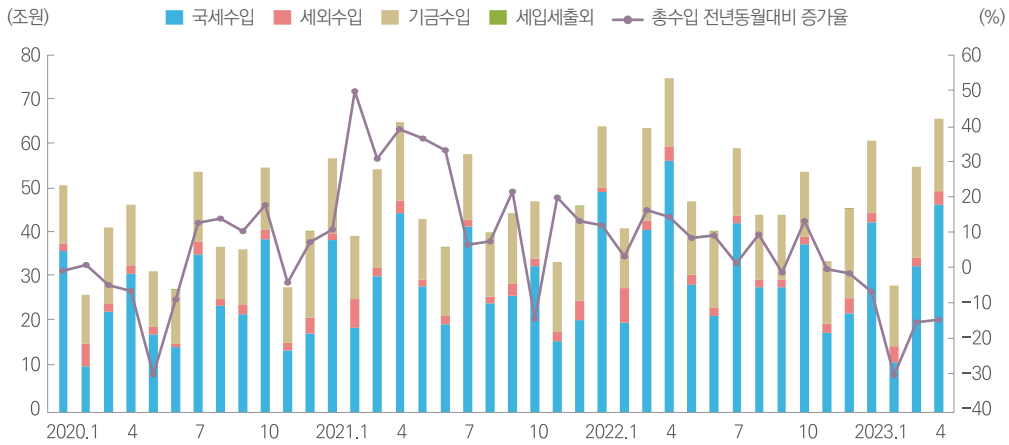
4 재정

2023년 1월~4월 누계 총수입은 211.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1조원(-13.9%) 감소[17)]

■ **1월~4월 누계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3.9조원 감소한 134조원**

-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8.9조원 감소한 35.7조원
-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15.8조원 감소한 35.6조원
- 부가가치세는 3.8조원 감소한 35.9조원
-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3.8조원 감소한 10.4조원
-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원 증가한 67.4조원

[그림 23] 월별 총수입 실적치 추이(2020.1월~2023.4월)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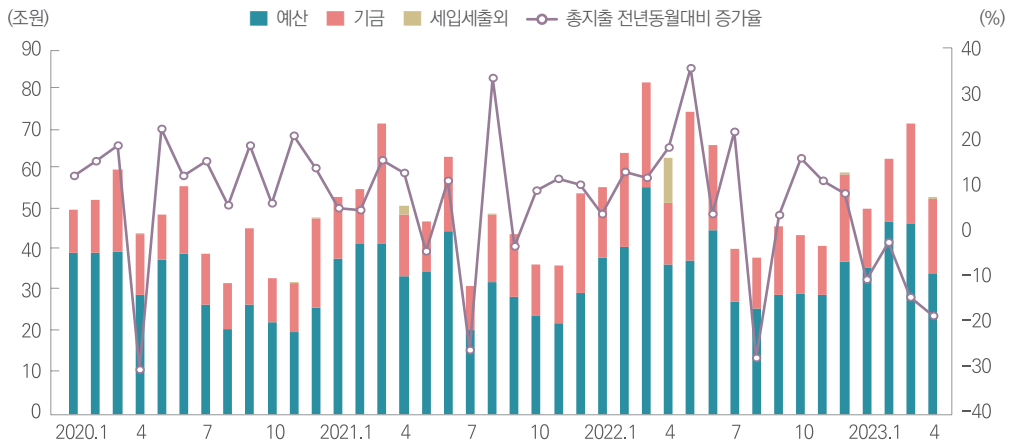
2023년 1월~4월 누계 총지출은 240.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5조원(-9.9%) 감소

■ **예산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의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1조원 감소한 167조원**

■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6조원 감소한 73.3조원**

17) 이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관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의 실적치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음.

[그림 24] 월별 총지출 실적치 추이(2020.1월~2023.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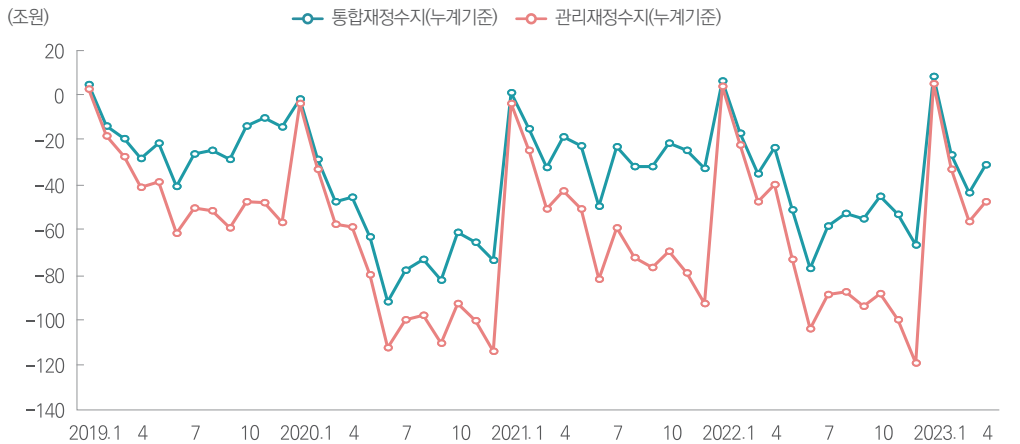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1~4월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9.0조원 적자

-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9.0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7.7조원 확대**
-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7.5조원 확대**

[그림 25] 월별 누계기준 재정수지 추이(2019.1월~2023.4월)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해외경제 동향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고 양호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등 성장세 지속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2월)0.0 → (3월)0.0 → (4월)0.5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3.2월)0.0 → (3월)0.0 → (4월)0.5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3.3월)21.7 → (4월)29.4 → (5월)33.9

「중국경제」는 경제활동 정상화로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2.4 → (3월)3.9 → (4월)5.6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1-2)3.5 → (3월)10.6 → (4월)18.4
- 종합PMI: ('23.3월)57.0 → (4월)54.4 → (5월)52.9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물가가 지속

- 산업생산(전월대비, %): ('23.1월)0.6 → (2월)1.5 → (3월)4.1
- 종합PMI(전월대비, %): ('23. 3 월)53.7 → (4월)54.1 → (5월)52.8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2월)-0.2 → (3월)-0.4 → (4월)0.0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3월)6.9 → (4월)7.0 → (5월)6.1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3.2월)4.6 → (3월)1.1 → (4월)-0.4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2월)2.1 → (3월)0.3 → (4월)-1.2
- 종합PMI: ('23.2월)51.1 → (3월)52.9 → (4월)52.9 → (5월)54.3

1 미국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고 견조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등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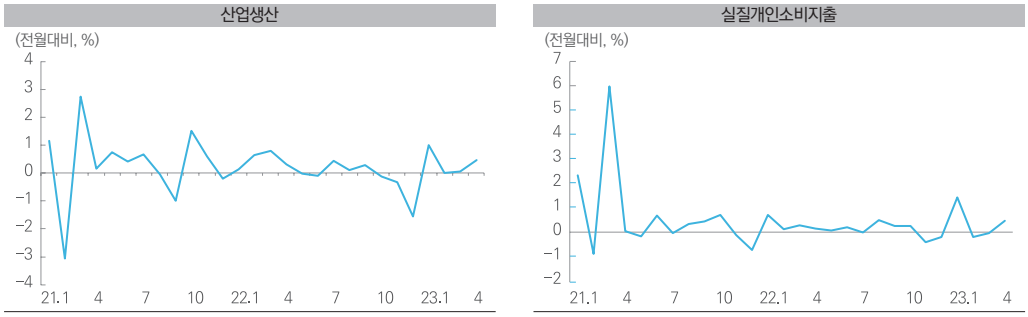
■ **4월 중 「전산업생산」은 제조업에서 자동차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늘며 증가**

-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5월 중 46.9으로 전월(47.1)보다 소폭으로 하락하였고 7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2월)0.0 → (3월)0.0 → (4월)0.5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3.3월)46.3 → (4월)47.1 → (5월)46.9

■ **4월 중 소비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은 내구재(1.4%), 서비스소비(0.3%) 등에서 늘며 증가하였고, 5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를 상회**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3.2월)0.0 → (3월)0.0 → (4월)0.5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3. 3월)104.0 → (4월)103.7 → (5월)102.3

[그림 1]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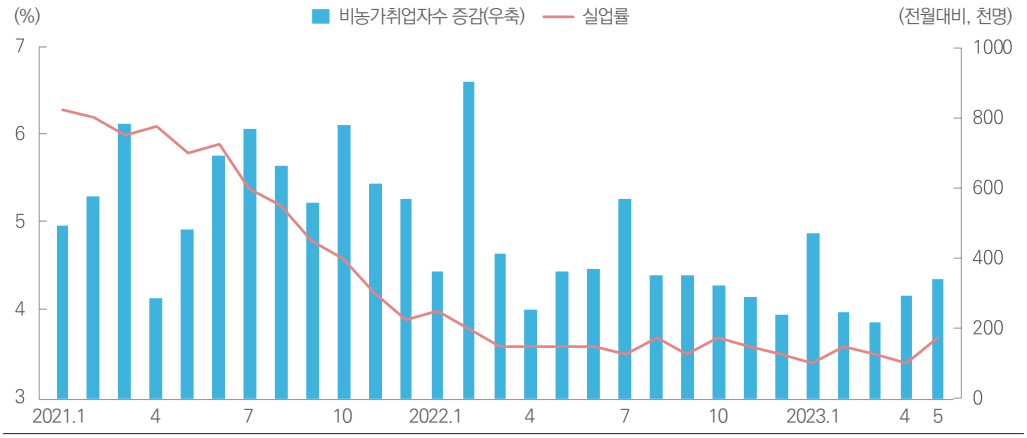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5월 중 노동시장은 실업률은 상승하였으나 고용증가폭이 확대되며 견실한 흐름 지속**

- 5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33.9만 명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3%p 상승
- 민간서비스부문(25.7만명)은 교육·의료(9.7만명), 전문·기업서비스(6.4만명)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며, 정부부문(5.6만명)도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3.3월)21.7 → (4월)29.4 → (5월)33.9
- 실업률(%): ('23.3월)3.5 → (4월)3.4 → (5월)3.7
- 경제활동참가율(%): ('23.3월)62.6 → (4월)62.6 → (5월)62.6

[그림 2]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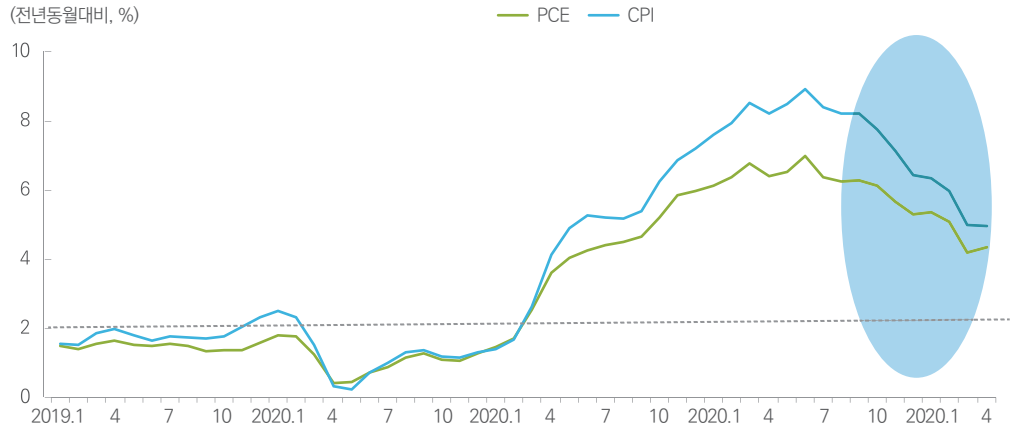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4월 중 「개인소비지출물가」는 전년대비 4.4% 상승하며 전월보다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9%로 10개월 연속 둔화**

- PCE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2월)5.1 → (3월)4.2 → (4월)4.4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2월)6.0 → (3월)5.0 → (4월)4.9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3. 3월)3.6 → (4월)4.6 → (5월)4.2

[그림 3]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5월 중 시장금리(10년물 기준)는 월초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FOMC 회의 결과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중순 이후 부채한도 법안 타결 기대와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등으로 상승**

- 장기금리(10년물기준)와 단기금리(2년물기준)는 월평균 각각 3.46%와 4.13%로 전월대비 각각 11bp 상승하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은 10개월 연속 지속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3.3월)3.66 → (4월)3.46 → (5월)3.57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3.3월)4.30 → (4월)4.02 → (5월)4.13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 ('23.3월)-0.64 → (4월)-0.56 → (5월)-0.56

2 중국

중국경제는 경제활동 정상화로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4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산업별로는 광업(0.0%)을 제외한 제조업(6.5%), 전기·가스·수도업(4.8%)에서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2.4 → (3월)3.9 → (4월)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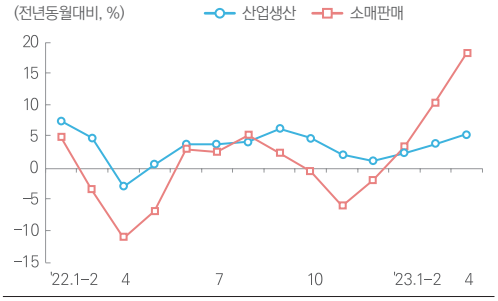
■ **4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

- 소비유형별로는 상품(15.9%)과 외식업(43.8%)에서 모두 증가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1-2)3.5 → (3월)10.6 → (4월)18.4

■ **4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누적치)」는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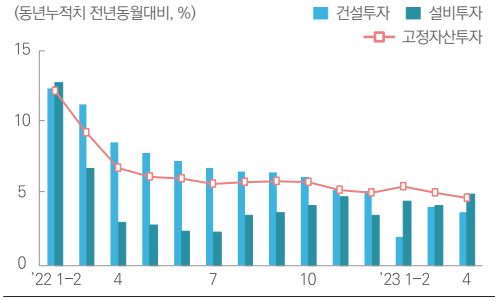
-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3.7%)와 설비투자(5.0%)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1-2)5.5 → (3월)5.1 → (4월)4.7

[그림 4]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5]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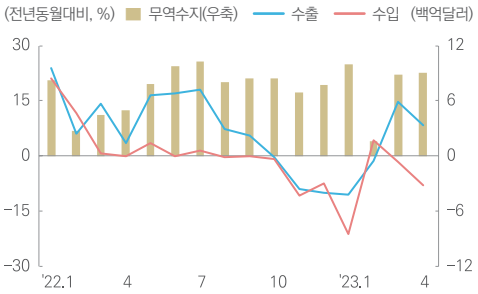
■ **4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902.1억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9% 감소
- 무역수지(억달러): ('23.2월)164.4 → (3월)882.0 → (4월)902.1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2월)-1.3 → (3월)14.8 → (4월)8.5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2월)4.3 → (3월)-1.4 → (4월)-7.9

■ **4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2%로 집계되었으며, 4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42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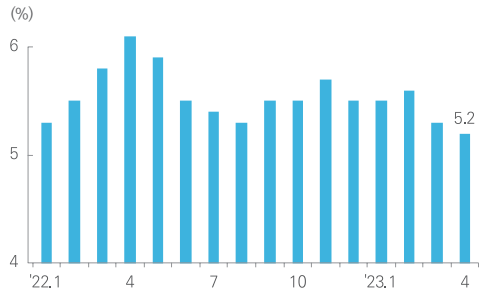
- 실업률(%): ('23.2월)5.6 → (3월)5.3 → (4월)5.2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3.2월)161 → (3월)297 → (4월)424

[그림 6]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7]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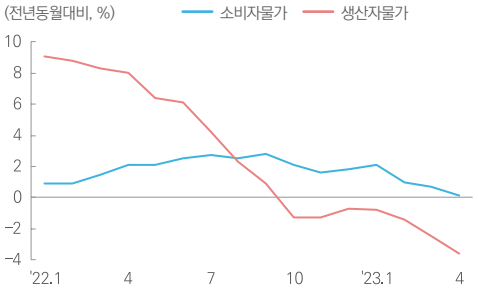
■ **4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 식료품 물가(0.4%)와 식료품 외 물가(0.1%)의 상승폭이 모두 축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2월)1.0 → (3월)0.7 → (4월)0.1

■ **5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2.9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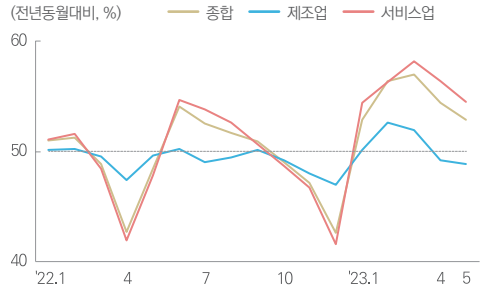
-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상회하였으나 전월보다 1.5p 하락
- 5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8.8, 54.5를 기록
- 종합PMI: ('23.3월)57.0 → (4월)54.4 → (5월)52.9

[그림 8]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9]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물가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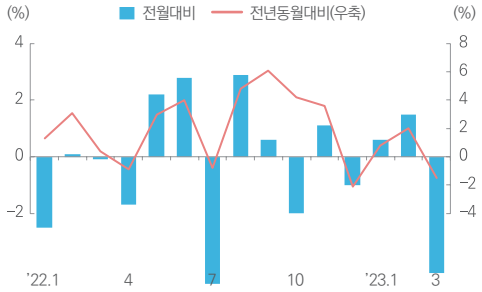
■ 3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4.1% 감소

- 자본재(-15.4%)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중간재(-1.8%), 소비재(-1.0%) 품목에서도 동반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전월대비, %): ('23.1월)0.6 → (2월)1.5 → (3월)4.1

■ 5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52.8로, 23년 1월 이후 50선 상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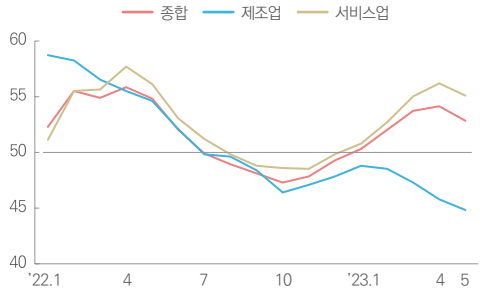
- 제조업 PMI는 44.8로 둔화 지속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55.1로 50선 상회 지속
- 유로지역 종합PMI(전월대비, %): ('23.3월)53.7 → (4월)54.1 → (5월)52.8
- 유로지역 제조업PMI(전월대비, %): ('23.3월)47.3 → (4월)45.8 → (5월)44.8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전월대비, %): ('23.3월)55.0 → (4월)56.2 → (5월)55.1

[그림 10]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그림 11] 유로지역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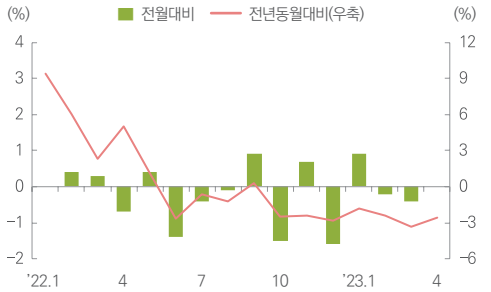
주: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
자료: Bloomberg

■ 4 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전월수준 유지

- 온라인 비식료품 소매판매(0.5%)는 증가했으나 음식료품 소매판매(-0.5%)는 감소
- 주요국 가운데 독일이 -8.6%로 하락폭이 컸으며 프랑스에서도 -1.3%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3.2월)-0.2 → (3월)-0.4 → (4월)0.0

■ 5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9월(-28.7) 이후 반등하여 -17.4를 기록

[그림 12]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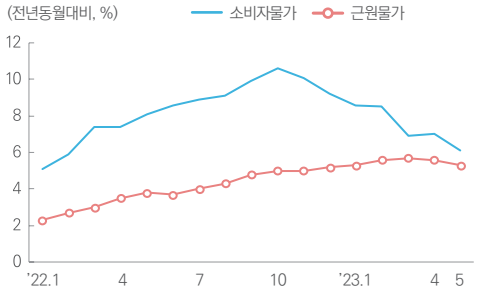
[그림 13]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Bloomberg

■ 5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6.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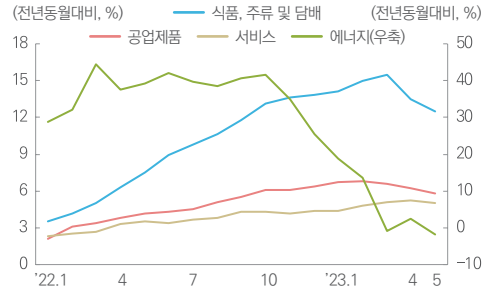
- 에너지(-0.1%)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음식료품(12.5%) 등의 상승 지속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3월)6.9 → (4월)7.0 → (5월)6.1
- 유로지역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3.3월)5.7 → (4월)5.6 → (5월)5.3
- 유로지역 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3.3월)-0.9 → (4월)2.4 → (5월)-1.7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5] 유로지역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 4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6.5%

- 실업률은 개선세 지속
- 청년실업률은 13.9%를 기록
- 유로지역 실업률(%): ('23.2월)6.0 → (3월)6.0 → (4월)6.5

4 일본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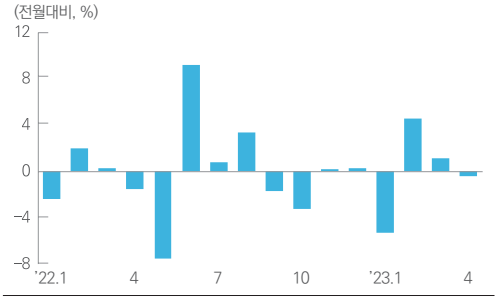
■ 4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규제가 강화되며 일본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생산용 기계공업 생산이 부진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3.2월)4.6 → (3월)1.1 → (4월)-0.4

■ 5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4.3을 기록하며 확장국면을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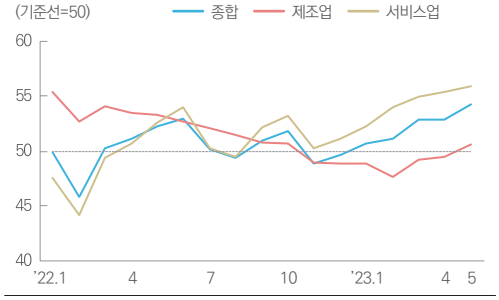
- 서비스업 PMI는 해외 수요와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종합PMI: ('23.2월)51.1 → (3월)52.9 → (4월)52.9 → (5월)54.3
- 제조업PMI: ('23.2월)47.7 → (3월)49.2 → (4월)49.5 → (5월)50.6
- 서비스PMI: ('23.2월)54.0 → (3월)55.0 → (4월)55.4 → (5월)55.9

[그림 16]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7]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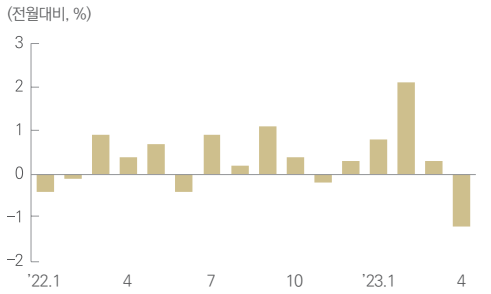
■ 4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2% 감소

-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2월)2.1 → (3월)0.3 → (4월)-1.2

■ 4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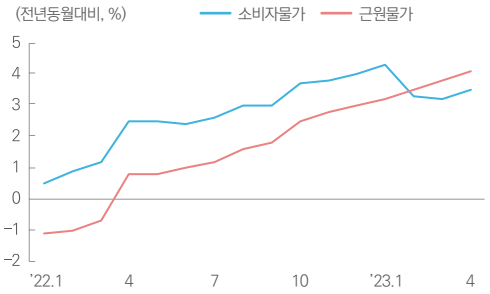
- 근원물가는 1981년 9월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2월)3.3 → (3월)3.2 → (4월)3.5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3.2월)3.5 → (3월)3.8 → (4월)4.1

[그림 18]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9]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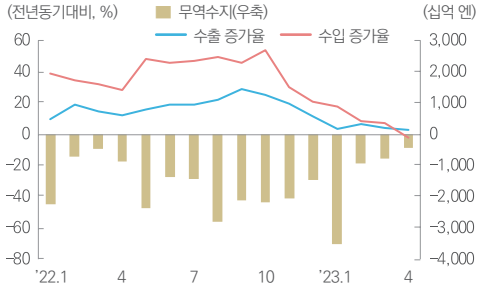
■ 4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4,320억엔 적자를 기록

- 21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적자 폭 축소
- 무역수지(십억엔): ('23.2월)-920 → (3월)-759 → (4월)-432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2월)6.5 → (3월)4.3 → (4월)2.6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2월)8.5 → (3월)7.4 → (4월)-2.3

■ 5월 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39.3엔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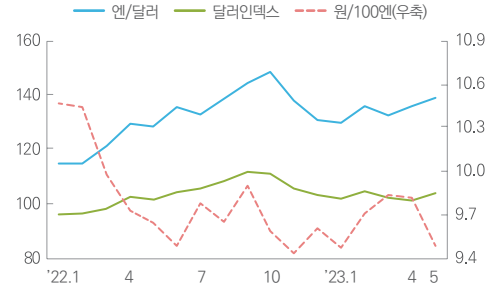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월말): ('23.2월)136.2 → (3월)132.9 → (4월)136.3 → (5월)139.3

[그림 20]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1]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기술경제 동향

1.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역할

2.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획자의 역할

"기술경제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

기술경제 동향

1.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역할

바디텍메드[1] | **최의열** 대표이사

1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 증가와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비중 확대

벤처캐피털은 2022년 기준 2,474개의 스타트업 사에 6조 7,640억 신규 투자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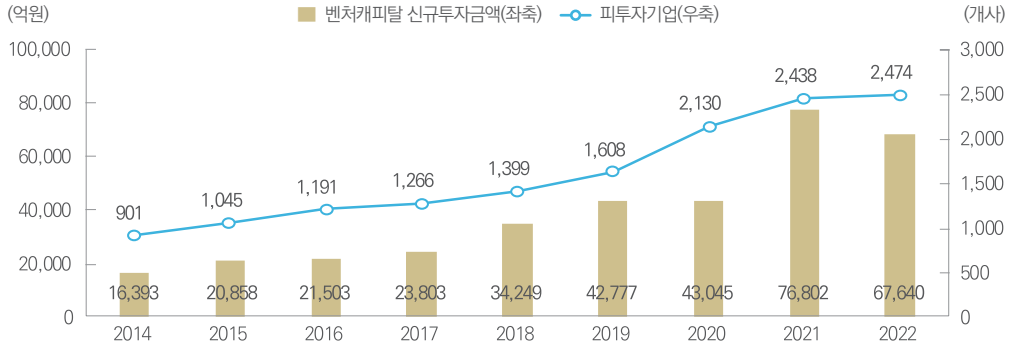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벤처캐피털의 제도 기반이 자리 잡고, 민간 투자가 빠르게 성장**

- 벤처캐피털 운영 재원은 2014년 12조원에서 2022년 51.4조원으로 증가
- 신규 투자금액도 2014년 1.6조원 대비 2022년 6.8조원으로 4.3배 증가

■ **그러나 2022년 신규 투자금액은 2021년 7조 6,802억원 대비 11.9% 감소, 2023년 1분기 또한 8,815억원 투자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이상 감소**

- 최근의 투자 감소는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군사적 긴장 고조(러-우크라이나, 중국-대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에 의한 글로벌 투자 위축 등에 기반

[그림 1] 국내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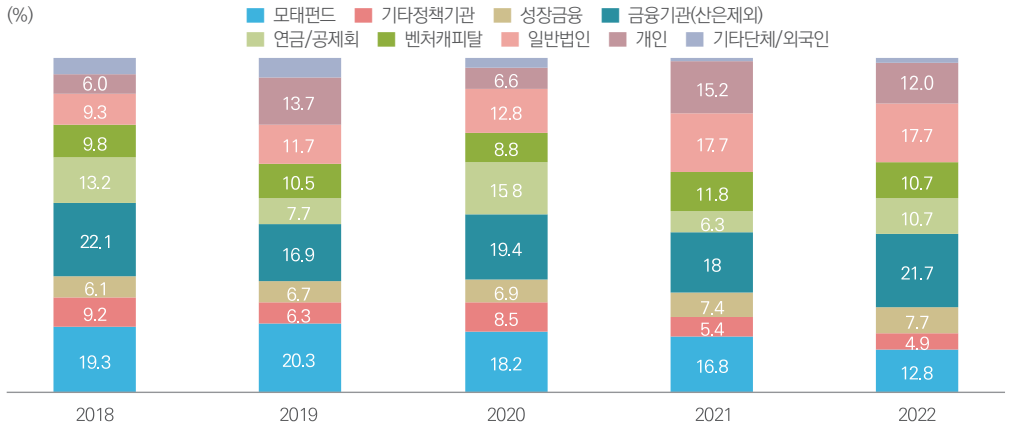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털,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바디텍메드는 체외 현장 진단(POCT, Point of Care Testing)에 특화된 국내 대표기업. 2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120개국에 9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

■ **2022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전체 투자금액 중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투자 비중은 17.7%로 2018년 9.3% 대비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

- 2023년 1분기에는 전체 신규 투자금액은 급감하였지만,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투자 비중은 23.8%로 전체 투자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정부에서도 이러한 투자업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2022년 11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시행하여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활동을 지원

[그림 2] 조합원 유형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털,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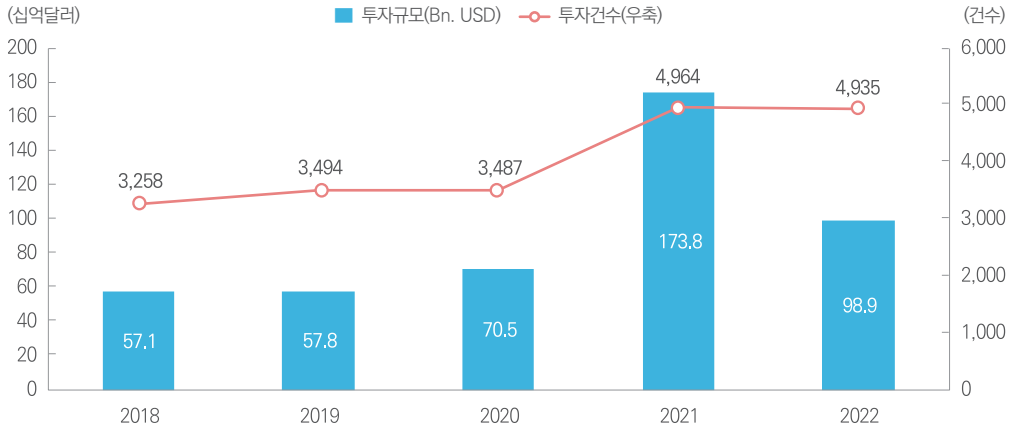
2 기업형 벤처캐피털(CVC)[2)]

가. 글로벌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현황

CVC는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형태의 벤처캐피털[3)]

■ **글로벌 벤처캐피털 시장의 CVC 투자액은 2018년 571억달러에서 2022년 989억달러로 연평균 14.7% 증가**

[그림 3] 글로벌 CVC 투자액 추이



자료: 한국벤처캐피털,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2020년에는 전체 글로벌 투자액에서 CVC 투자 비중이 24% 수준으로 추정. 미국의 경우는 CVC 투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미국의 구글벤처스(Google Ventures), 중국의 바이두벤처스(Baidu Ventures) 등 거대 IT 기업, 대기업 및 금융사들이 CVC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며 투자시장을 이끌고 있음
- 2022년에는 글로벌 벤처캐피털 활동의 위축과 동일한 원인의 영향으로 글로벌 CVC 전체 펀딩 규모가 축소

2) Corporate Venture Capital

3) 기업이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육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사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은 물론 자본수익까지 추구하는 수단

나.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통해 일반지주 CVC의 설립 근거를 마련

■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지분보유가 제한**

-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의 벤처투자도 함께 제약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2021.12.30 시행)은 지주회사가 CVC를 완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4)]
- 다만 차입규모, 조달규모 및 업무 범위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및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 규제 완화가 기대에 미치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2022.11.10 시행)을 통해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 등의 해석사항을 분명히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나타내고 있음**

➤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는 대기업 지주사를 중심으로 CVC 설립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3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털(CVC)의 역할

벤처캐피털 부문에서 CVC의 영향력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 규모는 세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CVC의 영향력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

- 금융기관 계열의 벤처캐피털과 함께 향후 벤처캐피털 업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특히 국내 기업들의 풍부한 보유현금 자원이 이러한 전망을 뒷바침

- 삼성, 현대차 등 국내 10대 그룹의 보유현금(현금성+당좌자산)은 22년 말 기준 862조원으로 2021년 734조원 대비 17.4% 증가하였고 지난 5년간 연평균 9.7% 증가

- 코스닥 상장된 제조업체의 보유현금은 2022년 190조원으로 삼성 그룹(금융업 제외) 보유현금 대비 68% 수준. 지난 5년간 연평균 8.6%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3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
  - 지난 5년간 연평균 8.6%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

[표 1] 국내 상장 제조업체 및 10대 그룹 보유현금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KOSPI제조업	765	859	935	944	924	962	1091	1302	1492
KOSDAQ제조업	83	96	110	126	118	128	148	180	190
삼성	144	170	200	192	212	214	231	258	280
SK	37	66	70	78	75	75	83	110	145
현대차	104	102	111	98	90	96	117	131	154
LG	41	43	47	54	51	54	72	78	95
포스코	30	31	28	29	31	33	38	43	49
롯데	22	26	28	37	23	22	23	27	30
한화	13	16	21	20	24	27	27	36	46
GS	14	15	16	16	13	12	12	17	21
신세계	2	2	2	3	4	4	6	7	9
CJ	13	13	15	16	18	21	24	26	32
10대 그룹주	419	484	538	542	541	558	632	734	862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Fnguide

벤처캐피털 자금 투자 중에 초기기업 비중은 29.1%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 **벤처캐피털 자금의 업력(회사의 창업단계)별 투자 비중은 지난 5년 평균 중기기업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기기업이 30.5%, 초기기업이 29.1%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CVC가 담당하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 CVC의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등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 가능

중소기업 역시 활발하게 CVC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

■ **풍부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경우 본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

- 연관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혁신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2.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획자의 역할

㈜블리스바인벤처스[1] | **형경진** 대표이사

1 논의 배경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 창업기획자(AC: Accelerator)[2]의 역할 증대

- **2022년 신규 투자는 5,787억원, 2,079개 사로 투자금액 기준 전년 대비 56.2%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기는 지속**

- **창업기획자(AC) 수는 2017년 56개 사가 등록된 이후 2022년 기준 417개로 증가[3]**
  - 창업기획자의 누적 투자금은 1조 3,091억원으로 6,487개의 스타트업(초기 스타트업[4] 5,107개)이 투자 수혜

- **창업기획자는 특히 투자금액 중 3년 미만 스타트업에 2022년 말 기준 약 74%를 투자하는 등 극초기 창업기업 발굴자 역할 수행 중**
  - 2022년 기준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 1,525개에 4,273억원이 신규 투자되어 투자금액 기준 전년대비 58.3% 증가

[표 1] 창업기획자 연도별 투자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개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스타트업	투자금액	8,431	52,220	100,718	198,511	370,501	578,729
	피투자기업수	128	458	790	1,228	1,804	2,079
초기 스타트업	투자금액	7,422	43,619	87,205	176,145	269,873	427,338
	피투자기업수	114	399	677	1,036	1,356	1,525
초기 스타트업 투자비율(금액)		88.0	83.5	86.6	88.7	72.8	73.8
초기 스타트업 투자비율(기업수)		89.1	87.1	85.7	84.4	75.2	73.4

자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2022년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 산업분석 리포트(2023.04월)' 참조

1) 2021년 6월 창업기획자 등록 및 2023년 4월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된 기술기반 스타트업 대상 적극투자형 액셀러레이터 기업
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제공, 멘토링 제공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AC)
3)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 '2022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 산업리포트,' 2023. 2.
4) 창업 후 3년 미만의 스타트업

2 창업기획자(AC)의 전문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

가. 공동 및 후속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전문가형 AC의 역할 증대

➤ 국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인프라는 성숙기이나 투자는 지속적인 확충 필요

■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보육인프라는 정부의 노력이 민간을 견인하여 크게 발전·성장하였고 AC들의 배치(Batch)프로그램[5] 내용도 다소 평준화**

- 예를 들어,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교육 포털 '창업에듀'[6]는 우수한 창업기업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 **보육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스케일업 잠재력이 충분히 크지 않은 스타트업들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생성된 닷컴버블 시기의 스타트업들 대비 사업 준비도와 생존 가능성이 크게 제고됨**

- 다만, 창업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투자 전문기관들의 벤처투자는 상장(IPO) 등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생존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반드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은 아님

➤ 딥테크기업[7] 등 차별화된 성장잠재력을 갖춘 초기단계 스타트업을 신속히 판별하고 창투사, 신기사, SI[8] 등의 공동 및 후속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이 갈수록 중요

■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초기부터 과감히 투자하고,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투자 주체들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이 갈수록 중요**

- 배치방식의 보육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육성된 다수의 기업에 대한 소액투자는 공공기관 및 대형화된 AC들을 중심으로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형성
- 시장분석, 전략수립, 사업모델 Pivoting 등의 기법이 널리 확산되어 있어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적기에 충분한 자금조달을 하는 것임

5)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통상 공개모집을 통해 스타트업들을 선발, 기수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보육
6)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2030000
7) 딥테크(Deep Tech) 기업: 과학·공학 기반의 원천기술이나 독보적인 기술을 집약해 사업을 전개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
8)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 주로 금융투자업이 아닌 기업들로 영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신사업을 발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나. 분야전문성과 기능전문성을 중심으로 AC들이 다원화될 전망

경기침체 및 시장내 유동성 축소,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투자선호기업군에 변화가 발생

■ **바이오, 서비스플랫폼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장기간 손실을 감수하며 기술 고도화 또는 시장점유율을 우선 확대하는 형태의 스타트업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AI, 기후테크 등 산업의 생산성, 친환경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관심이 고조**

- 투자 관심이 플랫폼 등 서비스모델 위주에서 기술기반 스타트업쪽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 분야별로 높은 전문성을 갖춘 AC들의 초기 단계 선별역할이 갈수록 중요

■ **연도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IPO)도 매년 꾸준히 증가**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특례상장(2019년 1개 → 2020년 17개 → 2021년 26개)

[표 2] 2005년 이후 연도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IPO) 현황

(단위: 건)

구분		'05~'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기술기업	바이오	6	3	-	4	1	10	9	5	15	14	17	9	93
	非바이오	-	-	-	-	1	2	1	2	6	8	8	22	50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편집·재구성

초기기술기업의 효과적인 발전과 잠재력(Scale-up)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력 제공 필요

■ **10대 초격차분야 등 기술집약적인 스타트업들에 대한 R&BD[9] 기획, IP전략[10] 및 글로벌 전략 등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원역량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

- '초격차' 개념에 부합하는 R&D와 IP전략을 기획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
- CES[11]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및 합작사업(Joint Venture) 구축,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이 우수한 창업팀을 발굴하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9)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기술개발
10) 특허 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전략
11)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주관해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비교적 큰 초기투자와 긴 런웨이[12](runway)를 필요로 하며, 글로벌 진출이 필수인 점을 감안하여 초기부터 적절한 성장전략을 갖추어야 함

[표 3]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10대 분야	세부 분류(예)
❶ 시스템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❷ 바이오·헬스	의약, 임상기기, 의료기기
❸ 미래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❹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❺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❻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❼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❽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❾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❿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자료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022.11월)' 참조

다. 산업계와 AC간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

➤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기업을 함께 발굴 및 투자할 수 있는 AC의 역할이 증대

■ **CVC[13] 및 자체 액셀러레이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인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위해 초기전문성 높은 독립형 AC들과 협업이 필요**

•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와 투자업계 관점에서의 기업선별 능력의 혼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음

■ **한편 구글·아마존·MS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들도 우수기술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14]을 효과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

12)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자생할 수 있는 수명

13)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CJ인베스트먼트(CJ), 플렌에이치벤처스(호반건설), 세아기술투자(세아그룹) 등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로 주로 영위사업 및 관련 신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재무적 관점을 동시에 감안하며 투자

14) 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 기업내부의 R&D활동으로만 기술·사업을 개선하려는 '폐쇄형 혁신'과 달리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기업 내외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본 글에서는 주로 대기업·중견기업이 신기술 및 신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한 전체 또는 요소기술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는 사업협력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의미

- 한국무역협회가 2023.01월 실시한 다국적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의 55%가 한국 스타트업의 강점으로 혁신 기술 경쟁력을 선택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음

3 종합점검

➤ 기술혁신형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계 및 투자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투자, 기술사업화, 글로벌 스케일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AC들을 육성할 필요

■ **초기 단계 우수기업을 조기에 선별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AC들이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에 대한 활발한 후속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투자역량 확충 필요**

- 역사가 짧은 AC업계의 특성을 감안, 시장조성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고, 역사적 수익률보다 후속투자 견인역량, 후속투자 시 기업가치증대율 등을 기반으로 평가함이 바람직

■ **보육방식에 있어 AC들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추구하는 특성을 인정할 필요**

- 표준화를 지향하는 배치프로그램 보육 여부 점검보다 기술분야별 특화된 사업기획, 글로벌 지원 등 AC들이 분야별, 기능별로 차별화된 보육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최근 논의 검토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박선우** 경제분석관(02-6788-3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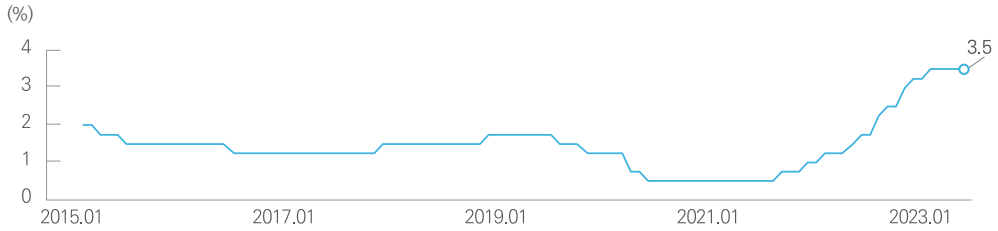
1 기준금리 동향 및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1)]**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예정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란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운영체계

■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1990년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91), 영국(1992), 한국(1998), 미국(2012)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채택[2)]**

1) 「2023년 5월 25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5.25.
2) 2022년 기준으로 약 74개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출처: Central Bank News)

- **(대상지표)** 속보성, 구성항목의 포괄범위, 민간의 이해도, 통화정책을 통한 통제 가능성 등에서 앞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지표로 사용
- **(물가목표 제시방법)** 단일목표치, 목표범위, 중심목표치±변동허용폭 등 3가지
- **(물가목표 수준)** 달성 가능성, 정책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적정 물가목표 수준을 결정

[표 1] 국가별 물가안정목표

목표 중심치(π^{target})	국가	국가수
$\pi^{target} \leq 2\%$	스위스, 영국, 일본, 체코, 캐나다, 한국 등	17
$2\% < \pi^{target} \leq 3\%$	아이슬란드, 폴란드, 헝가리, 호주 등	16
$3\% < \pi^{target} \leq 4\%$	과테말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10
$4\% < \pi^{target}$	가나, 남아공, 몽고, 이집트, 케냐 등	31

자료: Central Bank News(2023.6.)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해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에 안착시키려 노력

- **중앙은행은 구체적인 물가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화**

- **도입 초기인 1990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물가안정목표제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3)]**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도 금융불안정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버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극적 방임정책(benign neglect)이 우세[4)]
  -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버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는 비판

3) Levin et al.(2004), Cerisola and Gelos(2005), Pétursson(2005)
4) Greenspan, *Opening Remarks, speech delivered at FRB Kansas City Jackson Hole Economic Policy* Symposium "Rethinking Stabilization Policy", 2002.8.

2 물가안정목표 관련 최근 논의

가. 논의 배경

➤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2%의 물가목표를 채택

■ **2% 물가목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처음 도입한 뉴질랜드에서 제시**

-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향 편의(upward bias)'를 고려하여 물가목표를 2%로 설정[5)]
- 이후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2% 물가목표를 채택

■ **이와 같은 이유로 2% 물가목표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

■ **그러나 이후 2% 물가수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보완**

- New Keynesian 모형을 통해 도출한 일본과 미국의 최적 물가상승률은 약 2%로 나타남[6)]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인플레이션률은 2% 내외인 것으로 추정[7)]

➤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2% 수준의 물가목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 **Laurence Ball, Joseph Stiglitz 등 미국 경제학자들은 2017년 美 연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물가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8)]**

- 이는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던 당시 미국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
- 경기침체 방지, 디플레이션 회피 등을 위한 정책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물가목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최근에는 글로벌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서 2% 물가목표가 향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9)] 과정에서 지나친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물가목표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재촉발**

---

5) 뉴질랜드 재무장관이었던 Roger Douglas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0%~1%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이후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 Don Brash는 이와 같은 Roger Douglas의 발언과 뉴질랜드의 상향편의(약 0.75%→1%로 반올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0~2%의 물가목표를 설정

6) Tomohide et al., *Optimal Inflation Rates in a Non-linear New Keynesian Model: The Ca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vol.18 no.3, 2022.

7)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8.12.26.

8) "Policymakers must be willing to rigorously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previously-accepted policy parameters in response to economic changes. One of these key parameters that should be rigorously reassessed is the very low inflation targets that have guided monetary policy in recent decades."(2017.6.8.)

9) 인플레이션이 조정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

- 2% 물가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필요 이상의 소비 위축과 경기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 Joseph Stiglitz(美 컬럼비아대 교수)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고려할 때 물가목표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10)]

나. 상향조정

➤ 고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물가목표를 3~4%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

■ **팬데믹 이후 물가의 파급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11)] 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 이런 상황에서 2% 물가수준을 고수하며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음

■ **Fisher 방정식[12)]에 따르면 물가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대응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명목금리가 하한(0%)에 근접하여 금리 인하를 통한 정책대응이 불가능한 상황(Zero Lower Bound)이 자주 발생
- 물가목표를 상향조정할 경우 명목중립금리[13)]가 상승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여력이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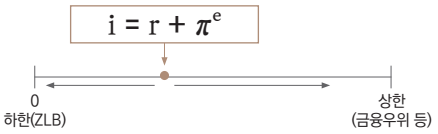
10) "On the contrary, given the need for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and downward rigidities in prices, a slightly higher inflation target has much to recommend it.": 「How should you fight inflation?」, The Guardian, 2023.1.27.

11) 이승석(2022)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물가의 파급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현재의 공급망 차질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고물가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

12) i(명목중립금리)=r(실질중립금리)+ π^e(기대인플레이션)=r(실질중립금리)+π^{target}(물가목표)

13) 실질중립금리: 실질GDP와 잠재GDP가 일치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상황에서의 균형실질금리(Blinder(1998))
명목중립금리=실질중립금리+기대인플레이션

[참고] 명목금리의 상한과 하한



통상적으로 명목금리는 0의 하한을 가지며 명시적인 상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그러나 금융우위(financial dominance; 부채 누증으로 인해 금융부문이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상황) 등이 명목금리의 암묵적인 상한으로 작용하면서 통화정책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다. 현행유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목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 **물가목표 상향조정은 경제주체들에게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 약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신뢰도가 하락할 우려**

- Bill Dudley(前 뉴욕 연준 총재)는 연준이 2% 물가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물가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14)]

■ **물가목표 상향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며 물가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최근과 같이 고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물가목표 상향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며 물가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14) "Finally, moving to a higher target before the Fed gets inflation back to 2% would undercut the central bank's credibility.": 「The Fed shouldn't raise its inflation target」, Bloomberg, 2022.11.28.

3 종합 및 시사점

➤ 올해 안에 즉각적인 물가목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15)]

-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근원물가[16)]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물가불안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월)5.2 → (3월)4.2 → (5월)3.3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월)4.1 → (3월)4.0 → (5월)3.9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물가목표치(2%)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물가목표를 상향조정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물가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 물가목표치 조정에 앞서 경제구조 및 인플레이션 동학 변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최근의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장기 저물가 기조로 회귀할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공급망 재편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물가목표 상향조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물가안정목표 변경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중요

-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2% 물가목표가 보편화되어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물가목표를 상향조정할 경우 해당국 통화가치 변동성이 확대

- 물가목표 조정이 환율변동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물가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필요

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워싱턴에서 열린 IMF 고위급 패널 토론에서 "우리의 물가 목표를 바꿀 때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목표 상향할 때 아니나 미래엔 대안으로 고려'", 뉴스1, 2023.4.15.)

16)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3년 6월호 통권 제37호

발행일 2023년 6월 23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527-002020-07
ISSN	2950-922X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